

교육개발

1996

통권 104호



특집 에듀넷과 학교 교육

권두칼럼

유태영/교육개혁 운동의 내일은 밝다

시론

이원영/유치원 공교육화의 과정과 방향

김영철/OECD 가입과 한국교육

문화광장

윤무부/천년을 산다는 두려움

테마대담 **다단계 교원 자격제도**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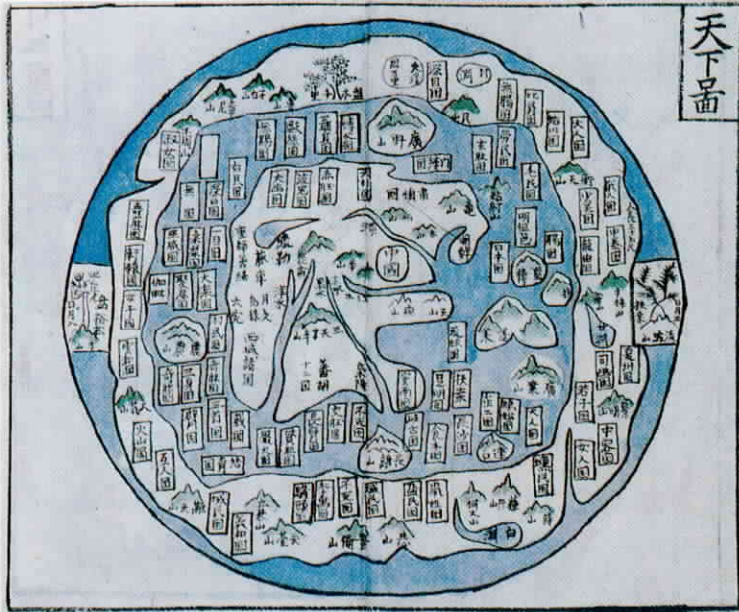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기획조정실 홍보편집팀 TEL (02) 3460-0233, 0234, FAX (02) 579-0746

천하도(天下圖)



사진은 1700년대에 그려진 옛날의 세계지도이다. 푸른색 바탕은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과 나무는 녹색으로 그려 사실감을 최대한 나타내고 있다. 지도의 왼쪽에는 해가 나무 사이로 뜬다고 생각하여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日月入이라고 적어 놓았고, 오른쪽에는 日出出이라 하여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그렸다. 천하도의 가운데는 중국을 그려놓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중국 옆에 朝鮮을, 그 밑에 日本國을 그렸다. 그 외에 大人國, 龍伯國, 我人國, 小吳國, 淑女國, 女子國, 大樂國 등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다.

교육개발

1996. 11

교육개발 1996. 11/총권 104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6년 11월 5일 발행/격월간
 발행인·이돈희/발행처·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전화 3460-0233, 0234/인쇄처·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유통실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이돈희
- 출판심의위원장/공은배
- 출판심의위원/김왕근, 김홍원, 김혜숙,
 나정, 백성준, 유균상, 이용순,
 정성무, 천세영, 최상근
- 홍보편집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정태호

교육개발 1996. 11



■ 화제의 사진

천하도(天下圖) 1

■ 권두칼럼

교육개혁 운동의 내일은 밝다/유태영 4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22

실업교육의 뿌리/노태천 6

■ 시론

- 유치원 공교육화의 과정과 방향/이원영 10
- OECD 가입과 한국교육/김영철 15

■ 스승의 한마디

꼭대기의 감자는 홀로 존재해야 한다/이원영 20

■ 알아봅시다

한국의 교육지표 1995-「교육의 결과」편/천세영 22

■ 특별기획

에듀넷과 학교 교육

- 교육 정보와 에듀넷/오진석 26
- 에듀넷! 이렇게 사용합니다/정성무 30
- 에듀넷을 이용한 학교 경영 정보화/이기흠 35
- '96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 개요 및 사례/방명숙 40
-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 방법/심웅기 45
- 에듀넷 사용 예절/신성균 49

■ **테마대담**

다단계 교원 자격제도

이윤식/양종구/오희철/이인규54

■ **세계교육의 현주소**

-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I)/황규호61
-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 (II)/정미리67

■ **보고서 중계**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연구/김주훈8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김홍주89

■ **연구동향**

- 과학과 종교, 친구인가 적인가/최인화94
- 정서지능(EQ)이란 무엇인가/정종진99
-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그 인식론적 배경/양미경104

■ **KEDI 연구뉴스**110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119



■ **학교탐방**73

열린 교육 열린 운동회
-동해 중앙초등학교 편- /이종태



■ **문화광장**80

천년을 산다는 두루미/윤무부



■ **KEDI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4**109

교육개혁 운동의 내일은 밝다

유 태 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정보사회 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간이 된다. 그리고 High tech age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후진을 면할 길이 없다. 과거의 사회발전 또는 사회변동 양상과는 다른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모든 분야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선진 대열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도 동일한 맥락에서 요구된다. 교육제도, 교육행정을 비롯하여 교육내용, 방법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현장의 교사들이다.

교육개혁의 철학이나 내용, 방향 등이 연구되고 제시된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개혁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모든 개혁운동은 관 주도적이거나 행정 주도적인 형태에서는 일과성의 구호에 그치고 만다.

사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 교육자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내용, 방향을 연구하는 노력만으로는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적으로는 개혁이 정착되기 위한 개혁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이란 학문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은 사회개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에서의 정착이 절



대적인 것이다.

개혁과정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의 교사집단에게 끊임없는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개혁의 철학, 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전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해 과정만으로 개혁운동이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오를 가져온다.

그동안 우리는 작고 큰 개혁을 많이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교육현장에서 정착되어 개혁운동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많은 개혁운동은 유행물처럼 교육현장을 스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와 시대적인 요구인 교육개혁은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개혁이 정착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 수용과정 연구로 유명한 Rogers는 개혁 수용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수용자의 특성을 분류해서 개혁자, 조기채택자, 조기대다수, 후기대다수로 나누었다. 개혁을 연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자 집단, 다음 이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조기 채택자, 그리고 셋째로는 수동적인 추종자 집단, 끝으로 회의적인 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개혁이란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조기 채택자의 활동의 영향이 잔여 교사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현장에서 각기 자기 분야에서 연구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교사집단의 조직을 개혁의 조기 채택자로 유도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다. 이러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개혁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개혁운동의 내일은 밝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21세기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교육법을 포함하여 교육의 틀을 다시 짜는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조선시대 인재 선발과 교육제도의 뼈대를 이룬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식의 신교육을 탄생시킨 갑오개혁(1894) 이후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22

실업교육의 뿌리

노 태 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중국 고대 야철기술발전서」(역서)의

1. 광성상업학교와 농상공학교의 설립

실학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중요시한 고종 황제는 상공학교의 설립을 독촉하는 조칙(詔勅)을 내려 상공학교관계가 1899년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상공학교는 시설·설비 및 관련 교사의 부족과 교과서 편찬 등의 문제로 개교하지 못하고, 서울의 상동(尙洞)이라는 곳에 사립의 광성상업학교가 1900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주·야간 3년 과정으로 상업학, 재정학, 무역실무 등 구체적인 전공과목을 가르쳤다. 관립의 상공학교가 학교 문을 열지 못했던 시기에 근대식의 상업교육을 실시했음은 실업교육의 역사상 매우 특기할 일이다.

상공학교관계의 제정에 이어 농상공학교관계와 농상공학교규칙이 1904년에 반포되면서 실업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농상공학교는 기초과정으로 예과를 설치했으나 본과의 교과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상공학교는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1904년과 1905년의 '관보'에 여러 차례 실었던 점으로 보아 개교를 했어도 정원이 미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05년까지 관립의 농상공학교는 예과만 운영되었고 농과, 공과, 상과 등의 본과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2. 수원농림학교, 선린상업학교, 경성공업전습소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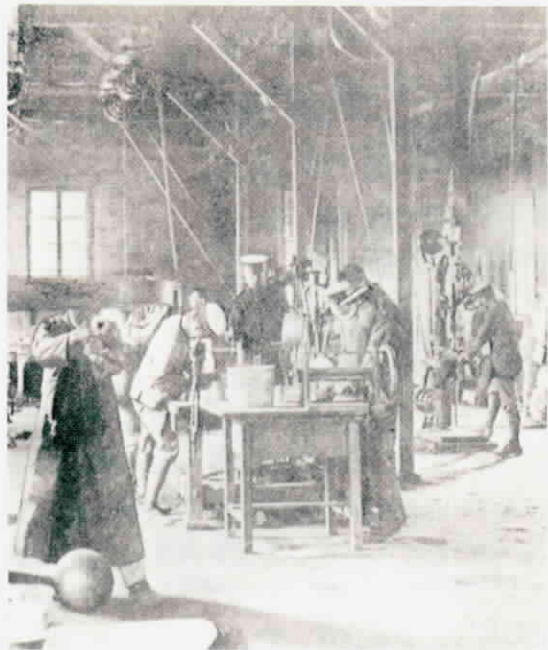
일제의 통감부는 대한제국 학부대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농상공학교를 1906년에 폐지하고 농업과는 관립 수원농림학교(1906)로, 상업과는 사립의 선린상업학교(1907)로, 공업과는 관립경성공업전습소(1907)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 때부터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원농림학교는 농학과와 임학과에 각각 본과(2년)와 연구과(1과)를 두었다. 선린상업학교는 명동에 있었던 농상공학교의 건물과 상업과 학생을 인수하여 일본인이 개교하였는데 야간 전수과를 설치하였다.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농상공학교의 공업과를 개편한 경성공업전습소는 염직과, 도기과, 금공과, 목공과, 응용화학과, 토목과 등의 6개 학과를 설치하였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졸업 후 1년간 반드시 전습(傳習)할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들 3개의 실업학교에는 수업료 면제는 물론 학자금까지 지급하여 식민정책을 수행한 통감부가 실업교육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감부가 농상공학교의 공업과를 공업학교로 개편하지 않고 공업전습소로 격하시켰음은, 대륙 진출에 필요한 값싸고 질이 낮은 조선의 기능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3. 공사립 실업학교의 설립

일제 통감부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기능,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학교령(1909.4.26)을 반포하였는데, 실업학교의 목적, 학생 수, 수업 연한, 입학 자격, 교과용 도서, 수업료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실업학교령에 이어서 이를 시행할 규칙을 정하였는데, 1906년에 제정된 농림학교 규칙과 공업전습소 규칙에 비하여, ① 교과목/주당 시수가 증가하였고, ② 입학 자격을 엄격히 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였으며, ③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증가시켰다.

실업학교령의 반포를 계기로 전국에는 공사립의 실업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909년에는 관립의 인천실업학교와 공립의 부산실업학교, 정주실업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사립의 실업학교로는 신흥 농업강습소, 협성농림강습소, 관진공업강습소, 용만 측량소, 창명측량학교, 영복측량학교, 군산실업학교, 춘천실업학교 등이 신설되었고, 사립의 창성농림학교, 용진상업강습소, 삼흥상업전수학관, 여자염직학교 등도 설립되었다.

4. 실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된 신교육 100년을 되돌아보면, 전반 50년(1895~1945)은 일본식 교육의 뿌리내리기였으며, 후반 50년(1945~1995)은 미국식 교육의 뿌리내리기로 평가된다. 이제 21세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의 백년 대계는 우리의 문화풍토에 맞는 교육의 뿌리내리기가 되어야 한다. 실업교육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밝힌다.

첫째, 실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고종의 칙령에 의하여 상공학교관제를 반포하고도 상공학교를 개교시키지 못했던 배경에는, 실업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을 것이다. 21세기 신직업 교육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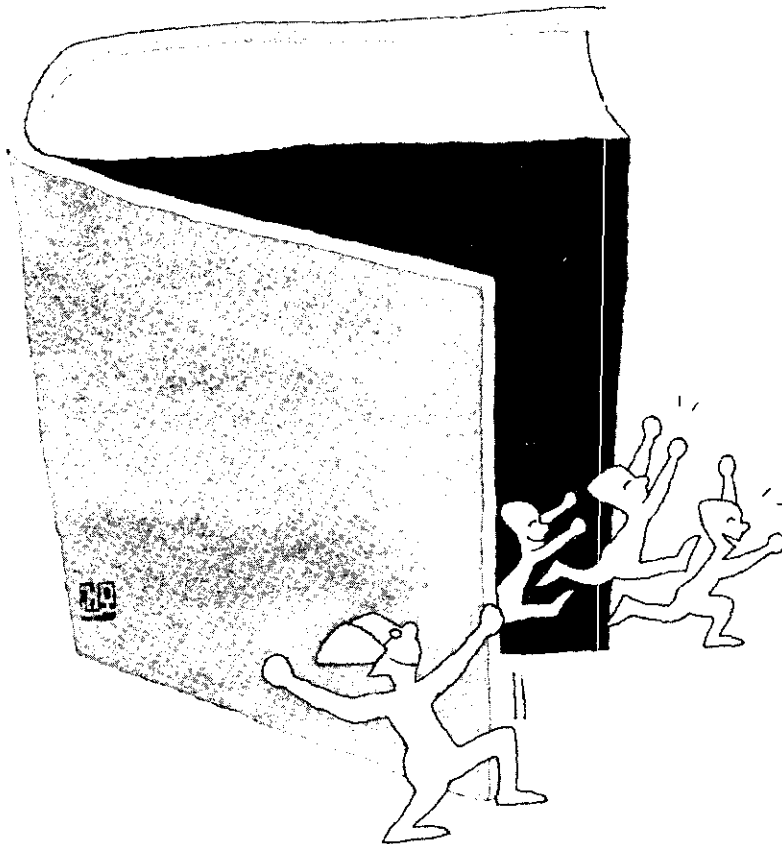
둘째, 실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립의 실업학교를 육성해야 한다. 관공립의 농상공학교

(1904)가 본과를 운영시키지 못하고, 학생도 미달이었던 시기에 사립의 광성상업학교(1900)는 본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실업학교령(1909)이 반포된 이후 많은 사립의 농림학교, 상업학교, 측량학교, 공업강습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관공립의 실업학교가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기술인력을 배출했음에 비하여 사립의 실업학교는 조선과 조선인을 위한 기능, 기술인력을 양성했음을 상기할 때 사립 실업학교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셋째, 공사립의 실업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근대식의 실업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된 배경에는 관립의 수원농림학교, 경성공업전습소와 사립의 선린상업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자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다. 실업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의 부담을 적게 하고, 학자금을 지원하고, 실험실습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일은 21세기 실업교육의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할 최소한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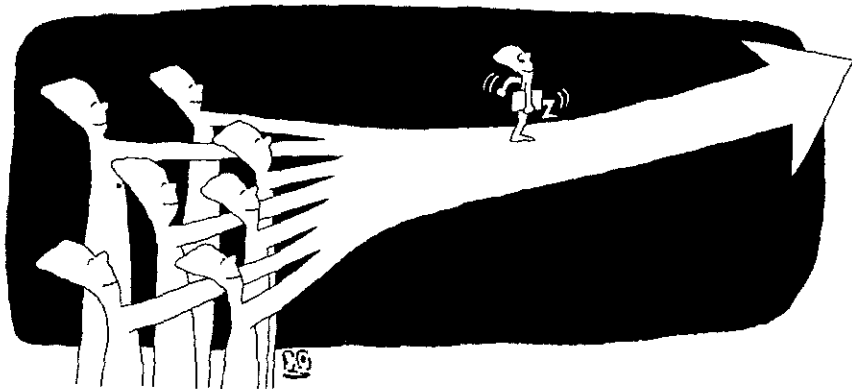
넷째, 최근 '교육과정 2000년'이라는 명칭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실업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공 분야가 다른 농업, 공업, 상업의 전체 영역을 포괄시킨 '실업영역'이라는 명칭보다는 구체적으로 '농업영역', '공업영역', '상업영역'으로 분리·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교육화의 과정과 방향

이 원 영



1. 유치원 공교육화의 의미

최근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한다는 1기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후(1995. 5.30) 이를 각각 다른 개념을 갖고 해석하고 있다. 유치원 공교육화를 의무교육으로 동일시 하거나 사립 유치원을 모두 없애고 공립 유치원만 설립하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5세 유아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취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뜻은 공립 유치원만을 세우는 것을 뜻하거나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치원

의 공교육화를 이상금등(이상금, 이영석, 이기숙, 박찬옥, 1993, p. 30)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보편적 교육을 개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나 지방행정부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정 등(나정, 천세영, 장명림, 1996)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가 감독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도 행정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공교육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의 공교육화인 것이다.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의무교육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강제 학구제에 따라 취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의무교육 대신 전면 무상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치원의 공교육화 과정에 사립유치원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공·사립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거의 1세기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사립 유치원은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쌓았다. 여건을 갖추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립 유치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립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물론 100%의 사립 유치원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급 학교에 비해 창의성 및 기본생활교육 등 도덕성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상당히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치원 공교육화 정착을 위한 과제

유치원 공교육화의 정착을 위해, 1993년 11월 한국유아교육학회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과제(이상금, 이영석, 이기숙, 박찬옥, 1993) 내용 중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과 교육부 위탁과제였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치원 공교육 확대 실시 방안(나정, 천세영, 장명립, 1996)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유치원공교육화와 무상교육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무상교육」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경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내포

되어 있다. “유치원교육 1년 완전 의무교육화”하면 국민들의 정서에 적합하고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 3세에서 5세를 교육하는 유치원 교육은 무엇보다도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발달적으로 잔병치레를 많이하는 이 시기의 유아들은, 학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해 주는 유치원에 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거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처음으로 형식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부담이므로 개인 발달 상황에 알맞은 유치원을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최선교수가 유치원의 공교육은 “자발적 의무화”이어야 한다고 한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유치원을 집 가까운 곳에서 선택하는 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가들 역시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 공교육화 달성의 최종연도를 2010년으로 하고, 취원 대상 유아를 단일 연령별로 약 60만명으로 볼 때, 적어도 2010년에는 만 5세 대상 유아의 80%가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약 20%의 5세 유아는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논의할 때는 3-5세 대상 무상교육을 장기적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만 5세 만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나가다가, 중국에는 만 5세아 전체, 4세아, 3세아 순으로 무상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 5세아의 경우도 처음에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이하 지역과 도시 지역 저소득층 5세 유아에게 납입금을 지원하



**사립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원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재정지원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여 유치원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2010년까지는 취원아의 약 30%인 14만 명(군 이하 지역은 100%에게 납입금을 지원하고 중소 도시 지역은 50%, 대도시는 10% 정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정, 천세영, 장명림, 1996)

나. 유치원 무상교육의 지원방향

1996년 9월 23일 개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과제 공청회에 의하면 유치원 무상교육의 방향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교육내용을,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유치원의 확보 및 제공"이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5세 유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무상교육은 대상 유아의 납입금을 지원하여 취원율을 올리고, 종일반을 운영하여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나정, 천세영, 장명림, 1996)

(1) 무상교육확대는 2010년까지 취원 대상 5세 유아의 약 30%인 14만명에게 납입금을 지원하되, 처음에는 군이하 지역 5세 유아에게 집중 지원하고 (50%), 중소 도시 5세 유아는 20%, 대도시는 10% 수준의 납입금을 지원을 한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납입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 또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재정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종일반 운영의 확대로 점점 증가하는 취업모의 필요와 그 자녀를 교육 및 보육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군이하 지역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이며, 유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유치원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2010년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약 30%가 종일반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26세~35세의 젊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발달의 유연성이 높은 영유아기의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 공·사립 유치원의 재정적 지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립 유치원은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원 인건비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경비의 거의 전부를 원아들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교원 인건비 수준이 공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문제이다. 사립 유치원의 53%는 임대 영세 유치원이고 일부 대도시의 대형화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인건비를 교육부의 규정대로 다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립 유치원은 원아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 경비는 높게 책정하는 대신, 부족한 재정을 교원의 인건비를 낮춤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연히 사립 유치원에는 경력이 낮은 교원들

이 고용되고 이들의 근무의욕은 낮은 보수로 인하여 떨어진다. 사립 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경력있는 교원을 채용하여, 원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점차적으로는 유치원 공교육화 추진과 함께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학 재정 결함 보조금을 사립 유치원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교육 심의회 보통교육분과, 1994,)

사립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원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재정지원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사립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현재의 사립 초등학교처럼 교육비를 완전 자율적으로 받아 특성을 살려 교육하는 자립형이 있을 수 있고, 사립 중학교처럼 교사 인건비등은 지원을 받으나 타 교육 경비는 보조해주는 일부 보조형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76%의 사립 유치원이 법인화되었으며 국고 및 지방재정으로부터 공립에 준하는 시설, 설비, 운영비 보조를 지원 받고 있다. 비 법인화된 사립 유치원도 학교 법인화 전환 계획의 의지가 보일 때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금, 1992) 비 법인화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이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등록시키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고, 유치원 교육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영국도 16세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법인화해가는 과정에서 경과 조치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각활동 및 놀이를 통하여 가장 잘 학습하는 유아들의 발달 특징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은 다양한 교재 교구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든다.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함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일은 필

수요전이다. 이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나정, 천세영, 장명림, 1996).

(1) 우리 나라 유치원 무상교육의 확대는 정부, 학부모, 사회공공단체가 각각 재정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과 각종 종교단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추진할 때 '독립 단독형' '병설 부속형'과 같은 다양한 공립 유치원의 형태로 설비해야 할 것이다. 1976년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공립 유치원을 설립할 때 여러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단독 건물의 공립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궁여지책으로 초등학교 병설로 유치원을 설립하였었는데, 현재 공립 유치원은 오로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고착화된 개념을 갖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독립단독형이지만, 초등학교내에 단독 건물 형태로 유치원을 건축 운영하는 형태의 병설단독형도 바람직하다. 운영형태도 다양하게 하여 자립형 유치원, 관리형 유치원, 완전지원형 유치원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3)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총 교육비 소요는 1996-2010년간 약 8조 9,680원, 연평균 5,97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은 총 5조 2,849억원, 연 평균 3,523억원이 된다. 1995년 현재 정부는 연간 약 1,300억원을 유치원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간 약 2,000억원 정도를 유치원 교육에 점진적으로 투자한다면 2010년에 이르러 5세 유아의 80%가 유치원의 종일반 또는 반일반(오후 12시 30분 또는 1시 까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 향후 15년간 정부가 매년 지원하게 될 3,523억원은 유치원 운영비, 교사 인건비, 원아 1인당 교육비 증액 등에 쓰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1996년 현재 전국 평균 217,000원인 1인당 운영비를 2010년에 497,000원으로 하는 것이며, 공·사립 유치원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원 인건비의 수준을 같게 하는 것이며, 1995년 현재 969,000원인 1인당 교육비를 2010년에는 1,3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소요될 것이다.

3. 맺는말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는 “유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육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통제할 줄 알고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서지능(EQ)의 기초가 다져지는 영유아기의 교육에 국가가 투자하는 정책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EQ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린 Goleman(1995) “정서의 순환기제는 출생 후 유아(아동)기를 지나는 동안 그 어린이가 하는 경험에 의해 조각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경험을 위험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며 출생 직후부터 유아기 및 아동기를 지나는 동안 세심한 배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뇌생리학자들의 최신 연구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 정서적 경험이 뇌에 각인되어, 그들이 성장한 후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eDoux, 1986; Goleman, 1995).

“아무리 유아교육이 중요하다하더라도 초·중등 교육 위주의 교육재정 수요 상태에서도 태부족인

교육예산을 가지고는, 유아교육쪽으로 재원을 분배하기 힘들다(김왕복, 1996)”든지 “유아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 책임”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는 한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교육부 장관, 정부의 정책 수립자 및 교육행정가, 일반 사회인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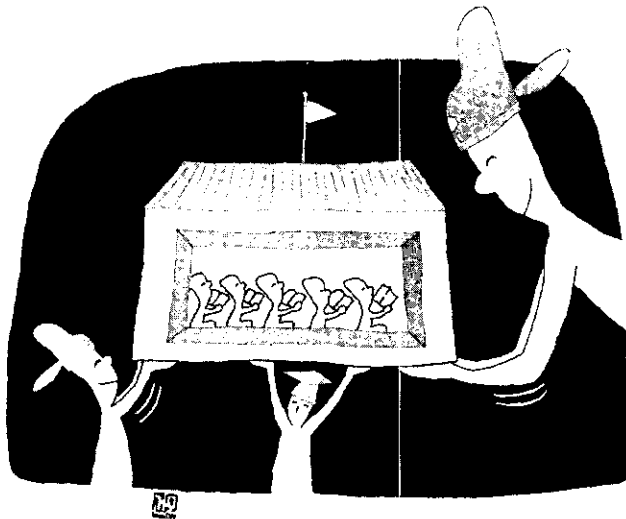


이원영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졸업
-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 「젊은 엄마를 위하여
- 「아이의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다」 외

OECD 가입과 한국교육

김 영 철



우리 나라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초청을 받게 됨에 따라 금년 중에 OECD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문제는 그 동안 OECD 내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OECD 가입 초청이 결정된 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10월 14~15일에는 한국교육정책 검토를 위한 OECD 교육위원회 회의와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국내 교육계에서도 OECD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성격에 대하여 간략히 개괄해

보고, OECD의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발전과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OECD의 성격

OECD는 1961년 자유진영의 서방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기구이다. 그렇지만, OECD의 기원은 2차대전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거슬러간다. 당시 유럽 국가들의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

‘신한국교육의 역동성’에서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내의 모든 요소들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교원의 전문성 및 결사의 자유, 초·중등학교의 평가, 공·사교육비, 학부모

선택과 공공재 등을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장하기 위해 1948년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다.

1960년 마샬 플랜이 완료되면서 서구의 18개 회원국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시켜 서방 선진국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20개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발족하였다.

그후 일본(1964), 핀란드(1968), 호주(1971), 뉴질랜드(1973) 등의 선진국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29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회원국들이 서구 선진국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ECD를 ‘선진국 클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가입이 논의되고 있고, 러시아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기 때문에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세계 경제발전 및 질서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협의 및 공동전략을 수립하며, 회원국에 대한 권고·지침 등 공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간의 협력 및 공동조치를 취하며 기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는 의결기구로서 이사회(Council)와 26개 위원회(Committees), 그리고 80여개의 작업팀(Working Groups)을 두고 있고, 이사회와 위

원회에서 정해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있다. OECD는 이상과 같은 본부 조직 외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와 같은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한국은 OECD에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각종 위원회와 산하기구에 정회원 및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 OECD 가입의 교육정책적 의미

OECD 가입은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시대 상황에서 국가발전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선진국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고, 소망스러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의 증대와 함께 선진사회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시민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의 동인과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은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학생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해 왔다.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 2부제수업 등과 같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하여 교육여건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치열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입시위주교육은 과열과 외 현상을 야기하고 학교교육은 본체도를 벗어나 교육철학과 이념의 구현은 물론 교육의 근간까지를 흔들여 왔다. 또한, 규제와 통제위주의 교육행정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과 같은 전환기적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우리는 1994년부터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교육정책이 지금까지는 국내적 시각과 필요에 따라 입안·시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OECD 회원국이 되면, 국가정책을 OECD내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앞으로 국가교육정책이 국제적 시각에서 검토되고 평가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이 전개되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OECD가 본 한국 교육정책

OECD 교육위원회의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가 지난 10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개최된 OECD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는 국내에서

교육개혁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개혁방안과 교육정책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 받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검토회의에서 OECD 검토자들은 한국의 교육개혁방안이 21세기를 지향한 세계화의 관점에서 대담하고 종합적으로 구상되었다고 보고, 한국교육의 구조적 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은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평생학습을 위한 융통성 있는 열린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 그리고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설정된 자율화, 분권화, 규제완화,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등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OECD 검토단은 검토보고서에서 한국교육정책을 평생교육, 교육의 질 추구, 지식과 정보, 및 역동성으로 나누어 분석·진단하였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육대상이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확장되고, 교육영역도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제도의 확장과 평생교육기회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평생교육이라 하여 기초교육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전통적 목표를 기초교육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취학전 교육의 확대, 특수교육의 확대, 기초교육으로서 초·중등교육 실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중등교육으로서의 직업기술교육을 고등교육으로 전환, 학습과 직장과의 연계 강화, 성인학습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질 추구'에서는 질 개선과 관련된 교과서, 교육기자재, 교원당 학생수, 교원 교육 등에

서 문제를 제시하고, 대학교육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연구기능,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동, 대학 교육내용 및 방법, 대학 교수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체제에서는 경쟁과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실시하고, 또 이 두 가지 상충된 교육방향을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할 것인가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식과 정보’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교육에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지식에 기초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국적 지식과 한국적 가치를 정립할 필요와 지식 기반의 확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한국교육의 역동성’에서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내의 모든 요소들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교원의 전문성 및 결사의 자유, 초·중등학교의 평가, 공·사교육비, 학부모 선택과 공공재 등을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검토단은 한국 정부에 8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내용을 권고하였다.

‘평생학습의 질’에 관련해서는 1) 학교의 수용능력 개선, 교원당 학생수 개선 및 질높은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각종 교육과 훈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전략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질 통제와 질 보증’과 관련하여 3) 고등교육기관, 훈련기관, 시·도교육청이 스스로의 통제하에서 교육·훈련의 질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며, 그에 따른 책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교직의 전문성’에서는 4) 교원수요가 새롭게 증대하는 분야를 포함한 교원수요에 따른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전문직들이 그들의 전문성 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을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교육과 훈련’에서는 5) 신대학의 성공을 위한 신대학 졸업자의 초임 수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초임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중등교육단계의 실업교육은 다양화하고 특수한 영역의 실업교육은 고등교육단계로 실업교육에 인문교육 내용을 보강하도록 한다. 7) 교육과 훈련을 관장하는 부서와 관련하여 국가수준에서 교육과 훈련의 자격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정보기술과 교육’에서는 8) 열린 학습이 중등이후 교육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열린 학습을 원격교육기관에만 제한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을 고등교육기관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지식기반의 확충’에서는 9) 교육개혁안의 교육훈련 목표로서 연구개발에 강조점이 주어지도록 하고, 모든 교육개혁정책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도록 한다.

‘교육업적 평가’에서는 10) 교사와 학교의 업적 평가는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교직의 질적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사교육자, 교사, 학생의 학습의 질을 다루는 교육평가 전문가의 협조아래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부모의 선택과 공공재’에서는 11) 교육당국이 과외수업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공평성과 사회 결속 차원에서 저소득계층 학생의 과외수업비를 보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12) 정책 목표와 고등교육기관의 업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 학교 졸업자들의 진로(대학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OECD의 권고 내용은 대체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개혁안의 이념·목표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OECD의 교육정책 검토와 여기서 나오는 권고가 각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OECD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보완해 나가면 보다 완벽한 교육개혁안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과 권고안은 우리 나라 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OECD 검토자들이 검토보고서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검토자들이 서구인의 시각과 서구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외수업에 대한 개방적 정책의 권고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로 인한 부작용과 폐단 등을 서구의 검토자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과 대학 팽창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등을 간과한 듯하다. 또한, 교원들의 단결권 인정도 君師父를 동일시했던 우리의 특수한 전통적 가치관과, 교원운동의 과열로 인한 폐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정책을 한국적 시각과 필요에 의해 수립하고 논의하여 왔다. 앞으로는 OECD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우

리는 국가교육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음미해 볼 필요를 느낀다. 교육정책의 보편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의 특수성 측면에서,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실정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기구에 주지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OECD 검토회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지적처럼, 아무리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개혁안이라 하더라도 실천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자원 동원과 개혁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철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수석연구위원
- 「학교제도」, 「교육 경제와 재정」의

꼭대기의 감자는 홀로 존재해야 한다

이 원 영

내가 존슨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 시절이 특별히 내게 더 소중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아니고, 그 과학을 실행하는 과학인이 갖추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해 준 은인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시절 나의 지도교수는 '프레드릭 뱅' 교수였다. 그분은 과학에 입문하는 나에게 과학이라는 방법과 연장을 가르치기 전에 과학인이 갖추어야 하는 도덕관을 먼저 습득케 하였다. 일정한 도덕 기준이 살아 있지 않은 연구집단의 행위는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생산하는 품목은 지적 재산이며, 지적 재산을 경쟁하는 이들 또한 과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두뇌가 명석하고 소질 또한 다양하느냐의 지적 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더욱 슬픈 일은 이러한 지능 범법자들은 학문의 도덕관에 관하여는 과학을 시작할 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과학계가 도덕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의 과학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도덕관을 내가 대학원생으로 있는 동안 그는 항상 잊지 않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그의 가르침은 또 다른 데에 있다. 과학이라는 관문에 들어선 초창기의 내 모습이 그분 눈에는 장난감 상점에 들어가 흥분하고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흥분하는 어린이 정도로 비추어진 게 틀림없었다. 내 흥미를 사로잡는 너무 많은 진열품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며 방황하는 나에게 어느날 지도교수는 종이 하나를 튜브같이 말아서 내게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 박사) · 연세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 「AIDS 바이러스 확인」, 「백혈병 원인균 발견」 외

전네 주며 그 구멍으로 보이는 것만을 고르는 법을 일러 주었다.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은 어느 한 분야만을 파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구분하여 외곶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과학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나만이 빠져드는 좁은 분야를 찾아 5년이 넘도록 한 분야를 공부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할 만큼 되었다. 나는 그 논문에 그분을 공동 저자로 넣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분에게 의향을 물었다.

학자의 연구업적은 발표 논문에 의해 좌우됨으로 이렇게 수년간 하나하나 지도받아 쓴 업적이므로 나는 이러한 제안은 당연히 받아드려 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해답은 자신이 결정하라고 나에게로 되돌려졌다. “우선 본인의 업적이 하나 보태어지는 것을 고마워하지만……” 하고 이어진 그분의 말씀은 “나는 이미 과학계에 잘 알려진 사람이다. 때문에 이미 과학계에서는 나의 과학적 논리에 동의하여 추종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일부는 나의 과학적 사고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너의 논문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나의 동조자는 내 이름 때문에 너의 이름은 가려져 버리고, 반대편인 사람들 또한 전혀 다른 이유로 너는 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의 업적에 대한 편견만 갖도록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나의 평생 희망은 나보다 나은 제자가 세상을 이어 주기 바라는 것이며, 그 기회가 자기 그림자로 인하여 흐려지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드디어 병아리 과학자가 되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을 마련해 주었다. 소위 송별 만찬인 셈이다. 거의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내게 너는 네 전공의 일인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좀 주저하면서 기왕이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였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그분은 감자 얘기를 꺼냈다. 감자를 수확하면 캐낸 감자를 한곳에 쌓아 놓는데 감자 무더기마다 맨꼭대기에 놓인 감자가 있기 마련이고, 맨꼭대기에 있는 감자 주변에는 아무 동료도 없이 항시 홀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계의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외롭게 존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잊은채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다름하는 현상이 과학계라고, 다른 세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이어 다시 감자 얘기를 계속하였다. 감자를 자루에 넣는다 해도 어떤 감자는 자루에 블록 튀어 나오는 감자가 있으며 붙어져 나온 감자는 항시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질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내 스스로 그분을 따르고 있음에 문득 놀라기도 한다. 그분은 연구방법과 기술도 가르쳐 주었지만, 그보다는 나를 과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양심과 지혜를 익혀주는 데 더 신경을 썼다. 내가 유전적으로는 부모를 닮았듯이 학문적으로는 내가 스승으로 모신 그분을 닮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도 그 스승 님처럼 나보다 나은 학생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한다.

한국의 교육지표 1995

—「교육의 결과」 편—

천 세 영

(본원 교육지표연구팀장)

교육의 결과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크게 정의적 성취, 신체적 성취, 졸업/학교 성취 및 취업치 소득 등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체 8개의 지표가 설정되고 있다. 정의적 성취에는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 학생의 비행 동기 유형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신체적 성취에는 평균신장 및 평균체중이 설정되었으며, 졸업/학교 성취에는 졸업률, 탈락률, 인구 10,000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취업 및 소득에는 교육정도별 임금수준과 학력별 취업률 등이 설정되었다. 여기서는 네 분야의 교육의 결과 지표 중에서 학생범죄 비행 발생률, 인구 10,000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및 학력별 취업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01.1)

교육의 정의적 성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이다. 이는 초 중 고 학생들 중 범죄 비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학생 범죄비행 발생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

단위명, 비율 in numbers %

연도 Year	폭력사범 Assult and betryery		절도사범 Theft		홍약사범 Heimasness		기 타 Others		계 Total	
	인원 number	비율 %	인원 number	비율 %	인원 number	비율 %	인원 number	비율 %	인원 number	비율 %
1976	9,803	58.9	4,041	24.3	140	0.8	2,671	16.0	16,655	100
1980	13,954	52.4	8,563	32.2	365	1.4	3,733	14.0	26,615	100
1985	20,478	49.1	12,582	30.1	584	1.4	8,086	19.4	41,732	100
1990	23,727	43.1	12,275	22.3	1,208	2.2	17,826	32.4	55,026	100
1991	21,333	37.8	13,410	23.7	756	1.3	20,997	37.2	56,496	100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범죄 비행 인원으로 살펴볼 때 1991년에는 1976년에 비해 약 3.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범죄 요인별로 살펴보면, 폭력사범이 1976년 9,803명에서 1990년 23,72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범죄 발생 구성 비율은 58.9%에서 43.1%로 감소하였다. 절도사범은 1976년 4,041명에서 1990년 12,2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범죄발생구성비율로 24.3%에서 22.3%로 약간만 감소하였다. 홍약사범은 1976년 140명에서 1990년에는 1,20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성 비율도 0.8%에서 2.2%로 증가하였다. 1991년 현재

전체 범죄 인원 56,496명중 폭력사범이 21,333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기타 20,997명(37.2%), 절도 사범13,410명(23.7%) 등으로 나타났다.

2. 인구 10,000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03.3)

인구수 중 학위취득자수의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명예박사는 제외했으며 박사학위취득자수는 1945년부터 누계로 제시하였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1970년에 160명이었던 박사학위 취득자는 1980년에는 1,053명으로 약 6.6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11,031명에 이르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1980년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1970년에 비해 약 5.2배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3,892명에 이르고 있다. 의학 분야의 경우, 1970년에 2,227명이었던 박사학위 취득자는 1980년에는 5,076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4,804명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난 25년간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규모에 있어서는 의학 분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증감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 분야, 의학 분야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분야별 절대 인원수의 증가 추세와 동일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교육정도별 임금수준(04.1)

교육의 효과 내지 생산성은 교육정도와 소득 수준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도별 평균소득은 주요한 교육지표이다. 교육정도별 월급여 총액으로 여기에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포함되며 연간특별 급여액은 제외되었다.

교육정도별 임금수준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큰 증가폭을 보였다. 중졸의 경우는 1995년 700,926원으로 1980년에 비해 약 6.2배의 증가를 보였고, 고졸의 경우는 1994년 774,174원으로 1980년의 약 4.97배, 전문대졸의 경우는 1994년 836,353원으로 1980년의 약 3.69배, 대학의 경우는 1980년 338,208원에서 1994년 1,148,671원으로 약 3.40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교육정도별 임금수준을 고교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그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의 경우 고졸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은 0.73, 전문대졸은 1.46, 대학(교)졸은 2.17이었으나 1990년에는 중졸이 0.88, 전문대졸은 1.17, 대학(교)졸은 1.75수준이었고, 1994년도에는 중졸이 0.91, 전문대졸이 1.08, 대학(교)졸이 1.48로 나타났다.

〈표 2〉 인구 10,000명당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수

연도 Year	인문사회분야 Humanities & Social science		자연과학분야 Natural science		의학분야 Medical Pharmacy	
	학위취득자 Number of doctoral degrees	인구 10,000명당 취득자수 Number	학위취득자 Number of doctoral degrees	인구 10,000명당 취득자수 Number	학위취득자 Number of doctoral degrees	인구 10,000명당 취득자수 Number
1970	160	0.05	259	0.08	2,227	0.69
1975	580	0.16	813	0.23	42,155	1.18
1980	1,053	0.28	1,954	0.36	5,076	1.33
1985	2,043	0.50	2,730	0.67	7,044	1.73
1990	5,101	1.18	6,826	1.57	10,283	2.37
1991	6,116	1.41	7,932	1.83	11,131	2.57
1992	7,175	1.64	9,038	2.07	11,932	2.73
1993	8,409	1.91	10,406	2.36	12,807	2.91
1994	9,554	2.15	11,945	2.69	13,799	3.10
1995	11,031	2.46	13,892	3.10	14,804	3.30

<표 3>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단위 : 원, 경상가				in won, current price
연도	중졸	고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
Yea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graduates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1980	113, 143	156, 647	226, 763	338, 208
1985	204, 019	257, 297	333, 259	552, 460
1990	407, 800	465, 044	542, 501	812, 168
1991	482, 118	541, 882	632, 384	912, 862
1992	575, 251	630, 430	719, 370	1, 010, 551
1993	643, 934	700, 926	763, 837	1, 073, 426
1994	700, 926	774, 174	836, 353	1, 148, 67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2~1994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75~1991

4. 학력별 취업률(O4.2)

교육 외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 가이다. 즉, 국가의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교육체제의 기능이 요구된다. 취업률은 이러한 교육효과의 외적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취업률은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대상자의 기준은 당해년도 졸업자수에서 상급학교 진학자수, 입대자수, 사망자수를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중 일반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에는 31.6%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15.7%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995년에는 26.2%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 중 실업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90.8%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에는 57.6%였으나 1990년대 이전에는 연도별로 커다란 증감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65% 내외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80년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55.0%에 이르고, 1995년에는 59.3%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실업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문대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약 7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1980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1985년부터는 대체적으로 약 55% 내외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4> 학력별 취업률

단위 : 비율		in %							
연도	일반고졸		실업고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Junior college graduates		College & university		
Year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T	F	T	F	T	F	T	F	
1965	31.6	33.5	43.4	33.4	57.6	50.7	42.8	26.8	
1970	17.3	17.9	57.5	61.2	83.5	78.4	70.6	50.5	
1975	16.9	18.7	40.7	30.3	41.3	35.6	71.8	57.8	
1980	15.7	21.3	58.2	62.8	79.0	75.0	73.0	55.2	
1985	16.2	24.2	60.4	65.6	57.2	49.9	52.1	49.9	
1990	18.7	27.1	84.0	86.7	71.8	68.2	55.0	39.7	
1991	19.6	26.8	86.5	88.7	66.1	72.8	56.1	42.3	
1992	21.3	26.2	87.3	88.6	65.1	71.1	55.6	42.7	
1993	23.2	27.9	85.8	86.6	63.5	68.9	52.1	40.8	
1994	25.0	27.6	88.9	83.4	68.8	65.6	56.4	44.5	
1995	26.2	28.5	90.8	91.1	66.7	70.9	59.3	5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특별기획

에듀넷과 학교 교육

- 교육 정보와 에듀넷/오진석
- 에듀넷! 이렇게 사용합니다/정성무
- 에듀넷을 이용한 학교 경영 정보화/이기흠
- '96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 개요 및 사례/방명숙
-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 방법/심웅기
- 에듀넷 사용 예절/신성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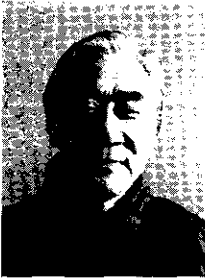
교육 정보와 에듀넷

오진석

I. 정보통신의 시대

현대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다. 산업사회에서 도로, 항만, 공항 등이 물류 유통망으로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사회간접자본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이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정보통신망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부의 창출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외에 제 4의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정보의 가치는 유통을 통한 폭넓은 활용에 있다. 활용이 많을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부가된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산업시대의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야단이다. 정보를 고속으로 나르기 위해서다. 정체된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 같이 '정보고속도로' 또는 '기반'이라고 명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의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러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은 말 그대로 물적 자본이다. 물적 자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자본이다. 정보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정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정보인의 양성 및 정보의 개발이란 과제가 대두된다. 그것은 교육의 몫으로서 교육 정보화를 요구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누가 먼저 교육의 정보화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미래 문명의 주도권이 판가름날 것이다"라는 말로 교육 정보화의 중요성을 웅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96년 7월 30일 제 3회 교육 정보화 추진 분과 위원회에서 교육 정보화 추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정보기술을 토대로 열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소장
- 「초등 교원의 자질 개발을 위한 계획·실천 평가」의

특별 기획

린 교육사회, 평생교육 사회를 실현하여 개인 및 국가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 정보화 촉진 6대 실천과제로서 열린 교육 기반 조성,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원격교육 확대, 학술·연구 정보기반의 고도화, 학술정보DB 구축, 전자 도서관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 중 에듀넷 사업은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사업에 편성되었다.

인류 지식의 총량은 전세계에 걸쳐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 폭증의 시대에도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정보의 유산자와 무산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질병으로 남을 것이다. 정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인 만큼 누구나 누려야 할 공유 자원이다. 정보의 창출 못지 않게 정보를 골고루 분배하여 널리 활용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이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보망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미국은 EduPort를, 캐나다는 SchoolNet를, 싱가포르 School Link를, 대만은 TANet를, 영국은 SuperJANET를, 호주는 EdNA를, 독일은 School on the Network 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우리 나라도 현재 교육 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인 에듀넷이 9월 11일에 개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에듀넷 사업은 교육개혁과 교육 정보화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빠른 시일 내에 에듀넷을 착근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비용은 줄이고, 접근 기회는 늘리고, 그리고 교육의 질은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에듀넷 활용법을 널리 알려 국민의 열린 교육망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대국민 정보화 촉진 차원에서 에듀넷의 구축 배경과 의의, 운영체제, 기능 및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에듀넷 구축의 의의와 기능

에듀넷은 교육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수요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육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이다. 에듀넷은 전국민의 교육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 의지, 멀티미디어교육 연구센터의 교육정보 연구개발 능력, 한국통신의 축적된 우수한 컴퓨터 통신 기술·경험이 이루어 낸 컴퓨터(Computer), 통신(Communication), 교육내용(Contents)의 결합의 산물이다.

에듀넷의 구상은 교육개혁위원회가 '95. 5. 31 교육개혁 방안'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데서 비롯된다. 에듀넷의 기본계획은 1996년 4월 4일 '교육 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교육부는 4월 16일부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의 기능 대행 및 에듀넷 사업을 추진토록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96년 5월 3일에 에듀넷 사업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96년 6월 21일에 부설기관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에듀넷 시스템 구축 및 정보개발은 3개월이란 기간의 촉박함 등 난제가 있었으나, 민간 IP 발굴, 인터넷 교육정보와 해외 교육정보 개발, 교육상담 서비스 정보 개발,

교육행정 지원 정보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보 개발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듀넷은 우리 나라 총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학생과 교사만을 위한 학교교육망이 아니라, 그 밖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사회교육 대상자들에게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국민의 열린 교육망을 표방한다. 에듀넷은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기회, 교육내용이 열린 교육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 보장된 평생교육사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고 정보화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는 정보화 사회, 일터와 학교와 가정의 구분이 없이 학습하는 사회, 안방에서 세계로 교통하는 지구촌 사회,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교육복지 사회의 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에듀넷의 4대 핵심 서비스는 ① 연구보고서 논문,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주제별 학습 자료 등의 교단 지원 DB와 음악실, 문학에의 초대 등의 문화 정보, 각종 교수 학습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기관 소개, 민간 IP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② 온라인 학교, 패쇄 사용자 모임,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인터넷 서비스, 상담서비스, 토론 마당 등의 정보 교환 서비스 ③ 원격 학교 지원, 평생교육, 원격 교육, Cyber 서비스, 홈쇼핑 등의 초고속 정보 서비스 ④ 교육 통계 정보, 문서 유통, 정책 해설, 한국의 교육 지표, 교육 관련 법규 등의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듀넷의 서비스는 크게 문자 서비스와 Web 서비스로 나뉘며, 서비스를 지원할 330여 개의 메뉴를 구성하고, 300여 종의 정보를 이번 개통식에 선보이게 되었다.

에듀넷은 학교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듀넷을 통해 학생들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질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최적

의 각종 연구 자료, 국내외 교수-학습 자료, 정보교환, 교육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당국자들은 학교경영 정보화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학교 운영 및 민원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진로·진학, 유아교육, 영재교육 등에 관한 자녀 교육 상담 및 재택학습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산수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분필로 그림도 그리고, 몸을 비틀어 가면서 입체도형의 개념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얼굴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만 커져갑니다. 이제는 에듀넷이 개통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에듀넷의 교육정보 자료실에서 입체도형에 대한 텍스트, 동영상 사운드가 통합된 코스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시뮬레이션하면서 학습합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학생들을 도와 줍니다. 학습은 학생이 이끌어갑니다. 학생은 더 이상 듣는 위치가 아니라 학습을 주도해나가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의 탄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 바로 이것이야.” 에듀넷은 학습의 입체화를 가능케 합니다.

III. 에듀넷 운영의 발전 과제

에듀넷은 이제 걸음마를 뒀는데 불과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에듀넷이 교육 정보화의 총아이자 국민의 열린 교육망, 평생교육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에듀넷은 정보화 사회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의 개혁, 국민 전반의 교육 수준의 향상, 지역·계층·신체·학력 요인으로 인한 교육격차 및 정보소의 계층 해소, 전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증진에 따른 국가 정보화 촉진과 국가 경쟁



력 강화, 교육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정보산업의 발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의 선진화와 정보화를 도모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에듀넷은 학교교육 관계 인구 4분의 1만을 위한 학교교육망이 아니라 사회교육 인구 4분의 3에게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국민의 열린 교육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듀넷의 사업 운영은 이러한 교육 비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정보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육철학,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교육망 구축·운영의 추진 협의체가 필요하다. 교육정보망의 운영체제를 보면, 교육철학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열린교육 이념을, 기술은 컴퓨터 통신 기술을, 추진 주체는 민·관·학·연·산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컴퓨터 통신 능력을 갖춘 통신 회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에듀넷의 교육철학은 교육개혁의 이념인 열린 교육이, 기술적 기반은 한국통신의 축적된 컴퓨터 통신 기술이, 추진은 교육 정보화 추진 분과 위원회가 제공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삼자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요청된다.

셋째, 에듀넷의 성공의 관건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심지어 휴먼웨어도 아닌 콘텐츠 웨어(contents-ware)이다. 즉 교육정보의 개발이다. 교육망은 컴퓨터(Computer), 통신

(Communication), 내용(Contents)의 결합체이다.

컴퓨터 통신망은 갖추어졌다. 이제는 가치 있는 교육정보, 내용을 개발하여 국내외로 유통시켜야 할 때이다. 이것은 단일 연구소가 전부 수행해낼 수 있는 성격의 일도 아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로서(IP: Information Provider) 민간 정보 산업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육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자료의 멀티미디어화와 교육정보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민간 교육정보 사업자들이 교육정보 및 DB개발과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정보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 교육 정보화의 방향과 부합되도록 에듀넷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다. 문명사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교육 정보화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정한 교육 정보화의 방향은 에듀넷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즉,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일, 교육 정보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일, 교육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인간 중심의 능력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교육 정보화의 촉매이자 산물인 에듀넷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에듀넷 ! 이렇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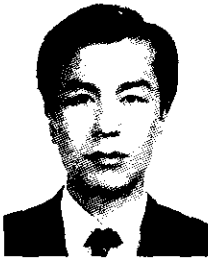
정 성 무

에듀넷은 각종 교육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온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육관련 정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수요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육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 전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에듀넷의 활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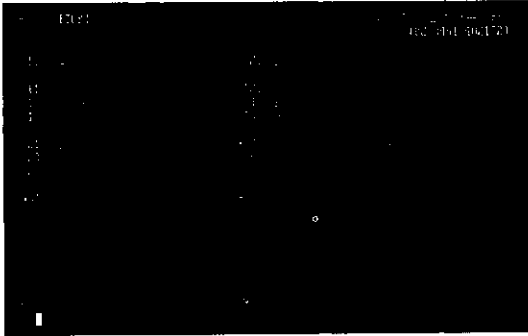
1. 에듀넷이 제공하는 2가지 서비스

우리나라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문자 서비스나 웹 서비스의 두 가지 중 한가지 밖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에듀넷은 문자 서비스와 웹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는 정보를 문자로만 구성한 것으로, 키보드로 문자로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웹 서비스는 문자 뿐만 아니라 그림, 소리,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는 문자 서비스에 비하여 사용하기가 쉽고, 보다 재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듀넷의 문자 서비스는 전자우편이나, 교육상담, 게시판이나 대화실 등과 같이 에듀넷 사용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웹 서비스는 에듀넷의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들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주로 제공된다. 물론, 웹 서비스에도 문자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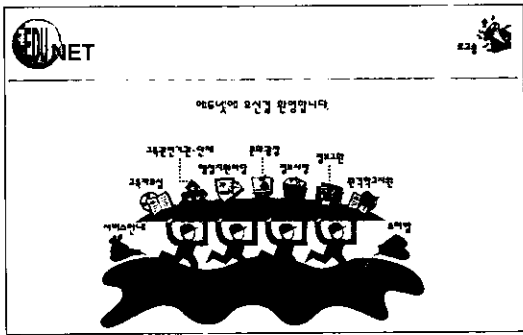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교실용 CAI프로그램 개발 연구」

스와 같이 전자우편이나 게시판 등과 같이 사용자 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그림 1] 문자 서비스



[그림 2] 웹 서비스

2. 에듀넷으로 가는 2가지 길

에듀넷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에듀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넷 정보 서비스 센터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가지 길이 있다.

에듀넷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공중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모뎀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전화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에듀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로 전화를 걸면 된다. 에듀넷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를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에듀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URL)를 입력하면 된다.

공중 통신망을 이용하여 에듀넷으로 가기 위한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 공중 데이터 통신망 : 01410 (HiNET-P)

▶ 공중 전화 통신망 : (02) 747 - 0011

단, 공중 데이터 통신망인 01410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시내 통화요금으로 에듀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요금도 30% 정도 할인되므로 매우 유리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에듀넷으로 가기 위한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문자 서비스 : ▶ telnet 128.134.77.133

telnet edunet.nmc.nm.kr

웹 서비스 : ▶ http://128.134.77.133/

▶ http://edunet.nmc.nm.kr/

3.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1) 준비물

에듀넷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서비스 환경에 알맞은 개인용 컴퓨터(PC)와 통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IBM AT(286) 호환 기종이면 문자 서비스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반면에 IBM 486급 호환 기종 이상이고 주기억장치(램) 용량이 8MB 이상이면 문자 서비스는 물론이고 웹 서비스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웹 서비스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고속 모뎀이 필요하다.

▶ 문자 서비스 환경

- 컴퓨터 : IBM AT(286) 호환 기종 이상
- 모뎀 : 2,400bps 이상
- 통신 프로그램 : 이야기(Ver. 5.2 이상), 하이콤(Ver. 2.0 이상), DL2 (Dacom Link Ver.2) 등과 같이 일반적인 통신용 프로그램

▶ 웹 서비스 환경

- 컴퓨터 : IBM 486급 호환 기종 이상, 주 기억장치(램) 용량이 8MB 이상
- 모뎀 : 14,400bps 이상(28,800bps이상 권장)
- 통신 프로그램 :
 - 소켓 프로그램 : 트럼펫 윈속(Trumpet Winsock), 트윈속(Twinsock), 디윈속(Dwinsock) 등
 - 웹 브라우저 : 넷스케이프(Netscape),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MS Internet Explorer), 모자이크(Mosaic) 등

여기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통신 프로그램은 에듀넷 문자 서비스의 공개 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다.

(2) 통신 환경 설정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화국이 있기 때문이고, 편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우체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듀넷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컴퓨터가 에듀넷과 원활히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문자 서비스 환경

일반적인 통신 프로그램에는 통신 환경을 설정

해 주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통신 환경을 설정한다.

- 모뎀 포트 : 컴퓨터와 연결된 다른 장비(예 : 마우스 포트)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보통 COM3 또는 COM4 포트를 사용한다.
- 모뎀 속도 :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뎀의 속도(14,400bps, 28,800bps 등)를 설정한다.
- 전화 종류 :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의 종류(전자식 또는 기계식)를 선택한다.

▶ 웹 서비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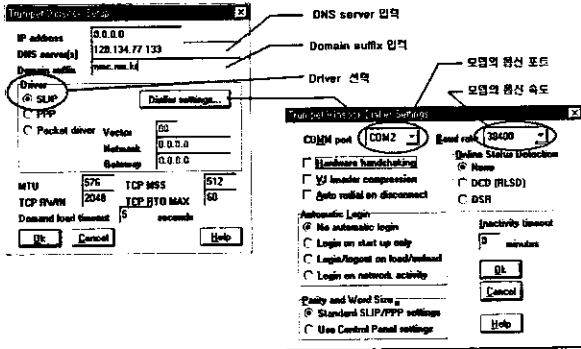
웹 서비스 사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Socket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트럼펫 윈속(Trumpet Winsock)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Setup 화면이 나타나면 [그림 4]와 같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 DNS server : 128.134.77.133
- Domain suffix : nmc.nm.kr
- Driver : SLIP선택
- 모뎀 포트 : 컴퓨터와 연결된 다른 장비(예 : 마우스 포트)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 COM3 또는 COM4 포트를 사용한다.
- 모뎀 속도 :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뎀의 속도(14,400bps, 28,800bps 등)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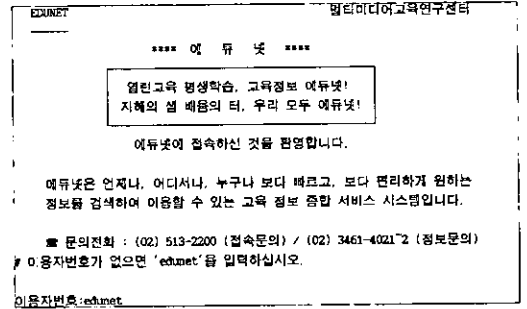
4. 에듀넷과 만나봅시다

에듀넷의 문자 서비스와 웹 서비스와 만나기 위하여 가는 2가지 길 중에서 공중 전화망을 이용하여 만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문자 서비스와 만나기 위한 통신 프로그램은 이야기 Ver 7.0을 기준으로 하고, 웹 서비스



[그림 3] 트럼펫 윈속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화면



[그림 4] 에듀넷의 초기화면

와 만나기 위한 통신 프로그램은 트럼펫 윈속과 넷스케이프를 이용한다.

(1) 에듀넷 서비스 사용 신청

에듀넷을 사용하려면 소정의 사용 신청과 사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 신청은 에듀넷에 접속한 후 이용자 번호 입력란에 'edunet'을 입력한 후 사용 신청자에 관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에듀넷 사용을 신청하면, 에듀넷 운영자가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24 시간 이내에 사용이 허가되는데, 이후에는 이용자 번호로 자신이 지정하였던 번호를 입력하면 에듀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에듀넷의 사용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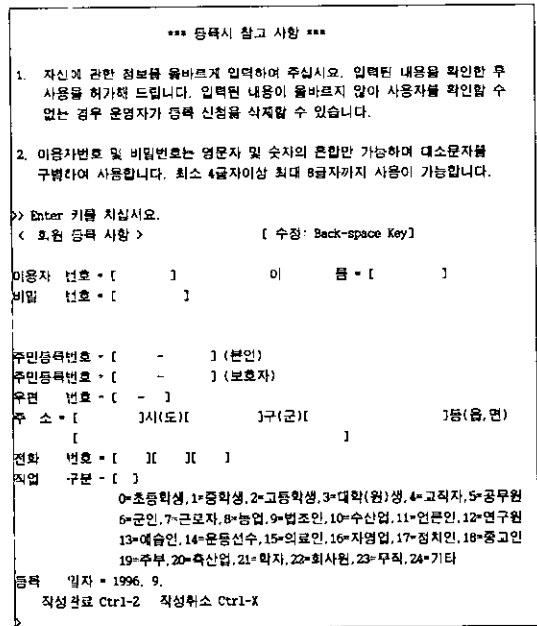
- ①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OK 신호가 제시되면 에듀넷 접속 번호로 전화를 건다.

ATDT 01410 <Enter>

또는 ATDT 02-747-0011 <Enter>

- ② 01410의 초기 화면에서 40번 에듀넷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은 에듀넷의 초기 화면이 제시된다. 단, (02) 747-0011로 접속하면 곧바로 에듀넷의 초기 화면이 제시된다.

- ③ 에듀넷에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 번호에 'edunet'을 입력하면, [그림 5]와 같이 에듀넷 사용 신청 화면이 제시된다.



[그림 5] 에듀넷 사용 신청 화면

- ④ 에듀넷 가입 화면이 제시되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Ctrl+Z(Control 키를 누른 상

태에서 Z키를 누름) 키를 눌러 에듀넷 사용 신청을 종료하는데, 이 때 자동으로 에듀넷과의 접속이 끊어지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에듀넷 문자 서비스와의 만남

①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OK 신호가 제시 되면 에듀넷 접속 번호로 전화를 건다.

ATDT 01410 <Enter> 또는 ATDT 02-747-0011 <Enter>

② 다음과 같은 01410의 초기 화면에서 40번 에듀넷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은 에듀넷의 초기 화면이 제시된다.

③ [그림 4]에서 에듀넷 사용 신청시 지정하였던 자신의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④ [그림 1]과 같은 에듀넷 문자 서비스의 첫 화면이 제시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표 1> 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여 에듀넷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다.

⑤ 명령 'x'를 입력하여 에듀넷의 사용을 종료한다.

(3) 에듀넷 웹 서비스와의 만남

① 윈도우 3.1 (또는 윈도우 95)을 구동한다.

② 트럼펫 원속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Dialler 메뉴에서 manual login을 선택하여 에듀넷 전용 전화 번호(02-747-0011)나 01410으로 전화를 걸어 접속한다.

③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첫 화면(에듀넷 톱메뉴)이 제시되는데 첫 화면에서 3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한다.

④ Esc 키를 한 번 눌러 slip모드로 전환한다. 이 때 트럼펫 윈도우를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

<표 1> 에듀넷 문자 서비스의 일반 명령어

명령어	설 명	비고
H	도움말을 보고자 할 때 사용한다.	
X	에듀넷 서비스 사용을 종료한다.	
GO	자기가 보고자 하는 메뉴로 직접 이동한다. 예) go rmail:편지 읽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T	에듀넷 서비스 이용 도중 최상위 메뉴 화면으로 이동한다.	
번호	화면에 나타난 해당 서비스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P	한 단계 전의 화면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F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B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어 이외에도 각 메뉴별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 메뉴에 나타나는 '이용안내'를 참고한다.

고 웹브라우저(Netscape, Mosaic 등)를 실행한다.

⑤ 네트스케이프 화면에서 에듀넷과 접속하기 위한 주소로 <http://edunet.nmc.nm.kr/> (또는 <http://128.134.77.133/>)을 입력하고 이용자 번호 입력 화면이 제시되면 자신의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K> 단추를 누른다.

⑥ 에듀넷 웹서비스의 초기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 메뉴를 선택하여 에듀넷의 웹서비스를 이용한다.

⑥ 에듀넷 서비스를 끝내려면 먼저 웹브라우저를 종료하고 트럼펫 원속 프로그램의 Dialler 메뉴에서 <bye:>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특별 기획

에듀넷을 이용한 학교 경영 정보화

— 교무일지 관리 프로그램의 활용 —

이 기 록

1. 들어가며

지난 9월 11일 에듀넷(EDUNET)이 정식으로 개통식을 가졌다. 에듀넷은 문자와 WEB(웹)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문자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전화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팩킷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망을 이용하여 접속하려면 에듀넷 전용 번호인 747-0011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서울 시내 전화 번호이므로 지방에서 사용하려면 시외 전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팩킷망 01410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 전화 요금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통신전용선이므로 시내 전화 요금의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화망을 이용하여 접속하면 바로 에듀넷의 초기화면을 볼 수 있으나, 팩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팩킷망 메뉴에서 '40. EDUNET'을 선택해야 에듀넷의 초기 화면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에듀넷에서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본 글의 내용은 WEB서비스를 통하여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웹(WEB)을 통한 에듀넷 접속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통신망을 접속한 후에 에듀넷의 인터넷 사이트인

edunet.nmc.nm.kr



· 인천교육대학교 졸업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사
· 「컴퓨터한마당」, 「재미있는 컴퓨터 학습」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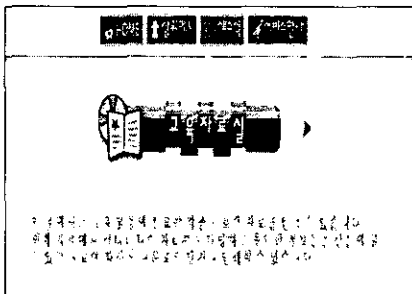
또는 128.134.77.133

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에듀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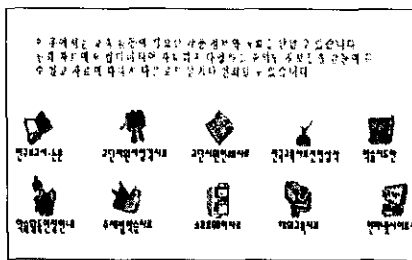


초기 화면에서는 교육 자료실, 교육 관련 기관, 단체, 행정 지원 마당, 문화광장, 정보시장, 정보 교환, 원격 학교 지원 등의 모두 7개의 서비스 메뉴가 제시된다.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가기 위하여 교육자료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화면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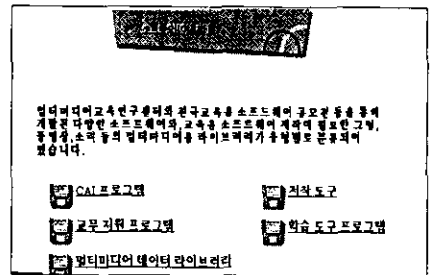


위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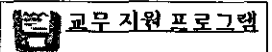
이 화면은 교육활동에 관계된 정보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으로 연구 보고서, 논문, 교단지원 시청각자료, 교단지원 인쇄자료, 전국 교육 자료 입상작, 학습 지도안, 학습 활동 현장 안내, 주제별 학습 자료, 소프트웨어 자료, 해외 교육자료, 인터넷사이트 정보 등 10개의 선택 주제가 제시된다.

이 중에서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자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는 CAI프로그램, 저작도구, 교무 지원 프로그램, 학습 도구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5개의 선택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이 메뉴 중에서 교무원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제공자, 파일명, 프로그램의 크기, 프로그램 이름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등록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 2차 저작 프로그램 ◎

제공자	파일명	크기 (KB)	프로그램이름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KEOA9501.EXE	497	교문 일치 관리 프로그램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KEOA9502.EXE	530	교문 일치 관리 프로그램

현재의 화면에는 교무 일치 관리에 관한 두 개

의 파일이 등록 되었는데, KEOA9501.EXE는 초등학교용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용이다. 초등학교용 교무지원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하여 다음 그림의 내용을 클릭한다.



3. 프로그램 압축 풀기

다운받은 프로그램은 압축되어 있으므로 압축을 해제해야 사용할 수 있다. 다행히 별도의 압축 해제 프로그램 없이도 해제할 수 있도록 실행형의 압축형태로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압축을 해제한다.

① 다운 받은 KEOA9501.EXE를 루트로 복사한다.

② 다음과 같이 압축 해제를 한다.

KEOA9501 □

③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가 형성된다.

C: \ CAI \ K95 \ HIGH \ SCHOOL \ KEOA9501

④ KEOA9501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파일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개의 배치 파일과 3개의 실행 파일이 나타난다. 3개의 실행 파일은 모두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HANJA.EXE
INSTALL.BAT
MAIN.EXE
USER.EXE

⑤ 위의 4개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한 다음 A: 드라이브 상태에서 인스톨(INSTALL)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C: \

- ├── KYOMU-P(주 디렉토리)
- ├── NDT(정보 저장용)
- └── USER(사용자 설명서 저장용)

생성된 디렉토리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이 복사된다.

- 디렉토리 KYOMU-P에 복사된 파일 K.EXE (실행파일)
- 디렉토리 NDT에 복사된 파일 HANJA.FNT(한자 폰트파일)
- 디렉토리 USER에 복사된 파일 MANUAL-P.HWP(사용자 설명서)
*.PCX(설명서에 필요한 그림자료)

4. 프로그램 실행 준비하기

(1) 사용설명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에 관하여 글 2.5로 작성한 MANUAL-P.HWP 파일을 살펴 본다.

(2) 프로그램의 시작

교무일지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은 KYOMU-P 디렉토리의 K.EXE 이므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K

(3) 비밀번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나온다. 처음사용할 경우에는 kedi로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메뉴의 도움 H 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P 를 선택하면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묻는다. 현재 비밀번호인 kedi를 입력한다.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4자리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비밀번호는 바뀐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5. 교무 일지 관리 프로그램 활용

교무일지 관리 프로그램의 주메뉴는 도움, 기초 자료, 일반자료, 학교일지, 종료의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 기능에는 달력/시간, 비밀 번호, 도스 명령어의 3가지 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료 메뉴는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료, 일반자료, 학교일지 메뉴의 기능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기초자료

기초 자료의 부메뉴는 학교자료, 학급자료, 교사 자료, 교과목, 수업 시간표의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

1) 학교 자료

○ 학교 자료는 다시 두 개의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 학교자료 : 학년도와 교장, 교감명을 입력할 수 있다.

○ 부서자료 : 부서의 수와 부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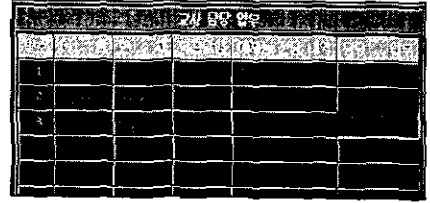
2) 학급 자료

두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있는데, 학 학급수 메뉴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급 수를 입력하고, 재적 학생 수에서는 전학년 학급의 학생 수를 입력한다.

3) 교사 자료

교사 자료에서는 각 교사의 이름과 담당 업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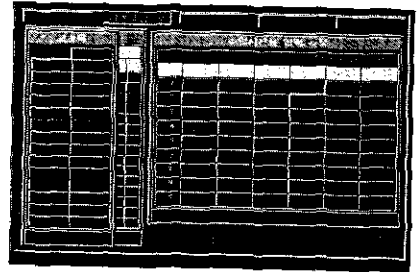
4) 교과목

교과목 수와 교과목을 입력하는데 약칭으로 입력된 교과목은 다음 수업시간표 메뉴의 자료로 활용된다.

5) 수업 시간표

수업 시간표는 각 학급의 시간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첫째, 입력할 학급을 선택한다.

둘째, 커서를 이동한 후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뉴 화면이 나타난다.



셋째, 메뉴 화면에서 교과목을 선택하고 키를 누른다.

(2) 일반 자료

일반 자료는 메모, 학교 행사 계획, 주요 전화 번호, 교원 명부, 어린이회 명부, 학부모회 명부, 특수 학생 명부 등 일곱 개의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1) 메모

하루 중 참고할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

2) 학교 행사 계획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및 계획을 입력하여 활용한다.

3) 주요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등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4) 교원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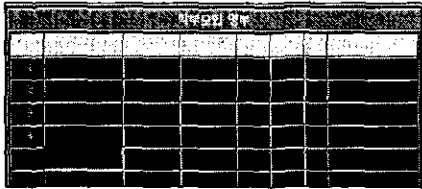
교원의 이름, 주소, 전화, 담당 학급 등을 관리한다.

5) 어린이회 명부

어린이회원 명부를 관리한다.

6) 학부모회

학교에 구성된 각종 학부모회 명단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7) 특수 학생 명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지도해야 할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관리한다.

(3) 학교일지

작성 날짜, 전달/협의/훈화/행사, 주번·당번 활동/일지, 직원 현황, 학생 출결 상황, 수



업/출석일수 등을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학교 일지 인쇄 기능이 있다.

6. 끝내며

지금까지 에듀넷에 접속하여 교무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컴퓨터를 교수-학습이나 교무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활용 방안은 그 것을 가능케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디스켓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이제 에듀넷이라는 교육망이 탄생하게되어 매우 편리하게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교육의 장이 마련 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96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 개요 및 사례

방 명 속

1.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 개요

1)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의 목적

에듀넷 시범학교는 에듀넷이 학교 현장에서 갖는 활용성을 검토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서 나타나는 에듀넷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현장에 에듀넷 활용의 일반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시범학교 선정 운영 방침

에듀넷 시범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 에듀넷 활용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 15개 시·도 교육청에 1개교씩 추천을 의뢰하였다. 학교급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안배하였고, 소외지역에 에듀넷 활용 일반화를 고려하여 강원도와 전라남도에는 도서벽지의 학교로 추천을 의뢰하였다.

에듀넷 시범학교 추천 기준은 통신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통신에 경험과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중에서 특히 교육정보화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강한 학교로 하였다. 추천 받은 15개 학교 모두를 에듀넷 시범학교로 확정, 운영하고 있다(표 1 참조).

3) 시범학교 운영 계획

각 시범학교는 9월에 탑재되어 시범 운영이 가능한 에듀넷 메뉴에서 운영 주제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 수립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와

특별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시범 운영 기간은 EDUNET 개통식 직후인 9월 16일부터 시작되어 학교 방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2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4) 시범학교의 역할

시범학교는 에듀넷 활용을 일반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각 해당 학교 전 교직원과 학생,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에듀넷 활용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에듀넷 활용 상황은 활용일지에 기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에듀넷 활용 경험에 근거하여 현장 교사 시각에 비추어진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기대된다. 담당 교사 15명은 에듀넷의 폐쇄사용자 모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범 운영을 위해 상호 경험담을 비롯하여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범학교는 3개월간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현장 학교에서 개최하고 운영일지를 포함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5) 시범학교 운영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에서는 시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협의회와 에듀넷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에듀넷 활용 시연회를 가졌다. 시범학교의 통신료, 운영비, 담당교사의 통신료, 수당 등 시범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소액의 금액이 운영 초기에 일괄적으로 지원되었다.

10월 중순경에는 시범학교를 방문하여 시범 운영 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의

<표 1> '96 에듀넷 시범학교 명단

지역	학교명	학교장명	담당교사명	지역	학교명	학교장명	담당교사명
서울	등현초등	권혁주	오미향	충북	충북상고	나세웅	김이수
부산	등현중	이종규	박우홍	충남	청운초등	김정기	박병렬
대구	경혜여중	이자우	김중대	전북	삼례공고	노동취	김유식
인천	선화여상	전두원	정세규	전남	압해중	백부선	오승록
광주	각화초등	정형수	양천성	경북	경북과학고	이말의	서경화
대전	대전서중	김용희	이찬배	경남	마산 무학초등	이진숙	강종기
경기	서현초등	오희철	권진우	제주	제주동중	함원택	조인석
강원	용하초등	문병훈	이경록				

통신 시설에 대한 실사 및 에듀넷 접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각 시범학교에 에듀넷 시범 운영용 이용자번호를 발급하여 운영 도중에 긴급한 공지 사항 또는 연락 내용을 송수신 할 수 있고, 운영자측의 필요와 시범 운영 담당 교사의 요구에 따라 대화실을 열어 지도·조언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에듀넷 시범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에듀넷 홍보 및 활용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시범학교에 에듀넷 활용안내서를 보급하였고, 담당 교사 요구 및 희망자에 한하여 에듀넷 활용 연수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시·도 교육청의 컴퓨터 교육 담당 장학사 및 에듀넷 담당 장학사는 에듀넷 시범학교의 자문위원으로 관할 시범학교에 장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시범학교 운영 사례

이 글에서는 15개 시범학교 중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7개교의 운영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울 등현초등학교

등현초등학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는 선구적인 활동을 하며 PC통신으로 가정통신문을 송수신하는 등 PC통신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컴퓨터 교실에 486급 이상의 컴퓨터 27대에 LAN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등현 초등학교는 5학년생 200명을 에듀넷 시범 운영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급 학생을 3~5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한 후 전자우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과제를 부여받고 부과된 교과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마당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교과별 과제 선정은 학급 담임교사와 에듀넷 운영 담당교사가 결정하되 에듀넷을 비롯하여 컴퓨터통신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과제로 부과되도록 사전 자료 탐색을 전제로 하는 주의가 기울여진 운영을 하고 있다. 매주마다 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며 에듀넷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 운영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 대전 대전서중학교

대전 서중학교는 현재 교육부 지정 컴퓨터 교육 시범학교 및 온라인 통신학교를 운영하는 등 컴퓨터 활용에 앞장서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 교실에 486급 이상의 컴퓨터 30대에 LAN카드가 설치되어 있어 에듀넷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전 서중학교는 에듀넷 게시판의 컴퓨터 문단을 통해 문예활동 지도 및 학급문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전학생, 전교직원, 전학부모에게 에듀넷을 홍보하기 위해 유인물과 PC통신을 활용하고 있다. 운영의 주요 대상은 1학년생과 온라인 통신학교 회원이다.

시기별 운영 주제로는 10월 16일에서 11월 5

일의 기간에 학급별로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11월 6일에서 12월 10일의 기간에는 에듀넷 게시판 컴퓨터 문단에 개인별로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동시에 매일 올려진 작품을 정리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12월 10일에서 12월 15일에는 학급 문집을 제작하게 된다.

3) 강원 용하초등학교

용하 초등학교는 6학급에 전교생 172명인 소규모 학교이다. 컴퓨터 교실에 386급 컴퓨터 20대에 LAN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 중 컴퓨터 교육에 앞장서 있는 학교로 주목된다. 용하 초등학교의 에듀넷 시범 운영 대상은 전교생과 전교직원으로 이루어진다. 전교직원 및 학생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각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탐색, 수집, 분석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된 활용 상황을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활용할 자료 및 활용한 자료를 학년별, 교과별로 분리, 보관하여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하초등학교에서는 에듀넷 시범 운영을 통하여 학교 전교직원 및 전학생이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습자는 에듀넷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 확립을 기대 효과로 두고 있다.

4) 충남 청운 초등학교

청운 초등학교는 6학급에 전교생이 73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이다. 컴퓨터 교실에 386급 컴퓨터 11대를, 전산실에 586급 컴퓨터에 28800 bps 모뎀과 PC통신 전용 전화회선이 연결되어 있어 에듀넷 시범 활용에 기초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다. 청운 초등학교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CAI를 개발한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교직원이 업무를 전산처리하며 수업에 적용하여 지역의 컴퓨터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청운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수를 정기적, 비정기적 연수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120분간 운영하는 정기 연수에서는 통신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자료 제작 방법을 위주로 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재투입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에 240분간 운영하는 비정기 연수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 연수를 비롯하여 에듀넷 서비스 활용 및 다운로드를 받은 자료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비정기 연수는 매주 3~4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활용 기술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험 운영의 주요 대상은 3학년에서 6학년생이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학년을 달리하여 하루에 한 학년씩 50분간 에듀넷 접속에서부터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5) 충북 충북상업고등학교

36학급에 학생이 1,700명에 이르는 충북 상업고등학교는 학교 특성에 걸맞게 전자제산에 관련된 인적 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컴퓨터연수 위탁기관으로 12년간 운영해 왔으며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실 설치, 인터넷 및 PC통신 운영, 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서는 컴퓨터 중심 학교로 손꼽힌다. 컴퓨터 교실에는 486급 이상 컴퓨터가 205대, 모뎀은 14400 bps 1개와 28800 bps 5개, LAN카드 3개가 확보되어 있다.

에듀넷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에 관련된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교내 전교직원을 비롯하여 전학생에게 에듀넷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에듀넷 활용을 권유하는 차원에서부터 에듀넷 등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인물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에듀넷 서비스 및 자료를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교과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에듀넷 활용의 일반화를 적극 지원하는 의미에서 PC통신 전용 전화회선을 증설하고 동호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운영 대상은 1, 2학년생으로 에듀넷에서 교과별, 학년별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업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과협의회와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6) 전북 삼례공업고등학교

삼례 공업 고등학교는 전라남북도에서 유일하게 통신과가 개설된 학교로서 컴퓨터 교육 및 통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학교로 주목된다. 현재 486급 이상의 컴퓨터 89대와 LAN카드 55개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지정 멀티미디어실 시설학교 및 중앙일보의 iie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PC통신 전용선과 라우터, DSU를 제공받을 예정으로 시설면에서 타학교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삼례 공업 고등학교는 충북

상업 고등 학교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에듀넷 활용안 모색을 주제로 선정하고 학생 및 각 교과 담당교사에게 에듀넷 활용을 위한 홍보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교사간, 학생간, 교사-학생간에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그 외 에듀넷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7) 경북 경북과학고등학교

경북 과학 고등 학교는 5학급에 1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교실에 386급 컴퓨터 31대와 586급 컴퓨터 33대, LAN카드 33개를, 실험실에 386급 컴퓨터 586급 컴퓨터 17대를 보유하여 에듀넷을 시범 운영하기에는 우수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경북 과학 고등 학교에서는 에듀넷 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동시에 교내 통신망을 구축하여 학교 행정 전산화 및 학생, 교사, 학부모간에 정보 교환과 교육상담을 원활히 하여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생활지도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 주제는 에듀넷의 교육상담 활용 운영이며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운영 대상은 1학년생 61명과 관계 교사 및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하였으며 이들에게 10월 중순까지 정보 활용 능력 및 상호 정보 교환 능력을 갖추도록 에듀넷 활용 연수를 실시하였다.

3. 맺음말

운영 사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을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PC통신에 경험이 있는 인적 자원이 많으며, 학교에 PC통신 시설을 갖추거나 약간

의 지원으로 PC통신 시설을 갖춘 수 있는 학교를 추천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시범 운영이 3개월의 단기간 사업인 관계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 추천에서부터 시범학교측에서는 운영 계획을 비롯, 운영 현장에서 다양한 난제를 극복하여 지금의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이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단기간에 수립된 운영 방안 대부분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에듀넷 활용 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의 교수-학습 활용 방안 모색과 과제물 부과 및 제출로 맥을 같이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내년도 에듀넷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최소한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구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배려가 주어진다면 올해 수립, 시행된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에듀넷의 선도적 활용 방안 및 시행에 대해 심층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에듀넷 활용 확산을 위해 우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사립 학교 및 우수한 시설을 갖춘 사립 학교도 포함하되 지원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의 PC통신 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비롯하여 에듀넷이 전학교급, 전교육과정에 훌륭한 학습 정보 자료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 조성의 절실함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 방법

심 용 기

1. 머리말

에듀넷의 개통으로 정보화 촉진과 교육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모습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에듀넷의 효과 중 수업의 효율성의 제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이들은 에듀넷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혁신적인 대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의 개입이 있어 우리의 예상을 비웃는다.



- 인천교육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본원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기획조정실장
- 「교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 방법’이라는 제목은 자칫 독자를 오해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에듀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언제나 최선인,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언급하거니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의 질이란 수업이 많은 상황 변인들의 치열하고도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양태는 오랜 교육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이 글을 통하여 필자는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의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접근 방법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일부 구분함으로써 에듀넷의 수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예측에 약간의 교통정리를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 구분의 준거는 컴퓨터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도한 이후 에듀넷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되었던 생각들이다.

2. 컴퓨터 교육과정과 에듀넷 구상의 취지

외국의 학교 교육과 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이들이 흔히 내뱉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

“아이들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학교에 가지 못해 안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How nice it would be if we could make our children get up early in the morning, become excited to go to school?)

학교가 많은 아동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원인은 학교 교육이 아동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위치에 두는 데 있다. 학교는 아동이 나타내야 할 성취행동을 일련의 리스트에 나열하여 처방하여 왔다. 학생이 그 행동에 도달할 때는 강화(reinforcement)가 주어지고,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복 연습하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학습의 도식(圖式)이었다.

이러한, 일방향적인 집단학습은 흔히 단순하고, 일률적이며, 따라서 지루한 것이 되기 쉽다. 컴퓨터를 사용한 개별적 처치로서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로 돌려 놓을 경우 학습의 흥미 면에서나 효율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에 컴퓨터를 도입하게 된 첫번째 취지이다.

둘째로,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가 가지는 것이 중요시된 배경에는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 전통적 학습관에 따르면, 아동이 교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마하는 것이 학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 때때로 실생활과 유리된 융통성 없는 지식, 전혀 전이력이 없는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고 만다. 예컨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실제로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매슬로우의 요구 5단계설을 잘 외우고 있는 학생이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식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학습이 실상황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풍부한 경험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방대한 전국적인 교육망을 통하여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한 것이 에듀넷 운영의 취지이다.

셋째로,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는 우리의 아동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은 이것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특정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데 한정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을 변형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종래의 학교 학습에서 다루어지던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정보를 암기하던 활동을 넘어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정보를 구성하는 활동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학생과 전국민에게 종합적인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에듀넷의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지도 내용 일체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물론 이것은 컴퓨터 교육과정과 에듀넷 구축·운영의 취지가 합당하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지도 방법의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동에게 학습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예측되는 부수효과

에듀넷을 개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시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의 수단이 교육 목적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다. 공학적 발달의 산물인 에듀넷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든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 때문에 에듀넷을 사용하기 적절한 주제를 찾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려를 뒷전으로 하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 깊게 보일까 하는 고려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

예컨대, 개구리 해부를 시뮬레이션으로 제공하는 환상적인 프로그램이 에듀넷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음악 감상을 하여야 할 학생들에게 개구리 해부 학습을 시키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치 교통 수단의 편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전후가 뒤바뀐 모습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의 발달에 교육적 배려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 또한 우려된다.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또 매체 사용을 위한 내용 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것을 고려하는 일은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



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4.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에 대한 시사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우리는 학습자들이 학습의 자율성을 신장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에듀넷은 학습의 개별화, 다양한 정보 형태에 의한 학습의 입체화, 학습자 상호작용 등 여러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에듀넷을 이용한 수업은, 큰 방향 설정이 있고난 다음에는 비교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교사에게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종래의 수업에서 교사는 교실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지휘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듀넷을 사용하는 수업의 많은 부분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

으로 구성된다. 이 때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을 본다든지 우두커니 먼 산을 보고 있는다면 직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연주가 있는 동안 잠시도 쉴 수 없다. 그러나 정원사는 풀과 나무를 가꾸는 중간에 얼마든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누구도 이를 부도덕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시도 쉬지 않고 풀과 나무를 옮겨 심음으로써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과거 지휘자에서 차츰 정원사와 유사한 것으로 변형되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적시적소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도움이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그 성격이 사뭇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교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컴퓨터에 대한 일종의 동경과 경계심이 복합된 독특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컴퓨터에 대한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흥미 또는 동기 수준도 낮은 편이며, 컴퓨터에 대한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한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업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에듀넷 접속과 조작에 관련된 기초 기능의 습득에 두어져야 한다. 초기 단계에 너무 어려운 과제를 다루거나, 학습자에게 자율적인 문제 해결의 역할을 넘기는 것은 자칫 학습자를 국외자로 남겨 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것은 이후의 학습에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가 칭찬이나 격려도 이 시기에는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 칭찬이나 격려는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기초 지식과 기능이 결여된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강화자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목표 달성 상태에 대한 오해를 빚게 할 가능성이 있다.

숙달 단계에 이르러 학생들의 기초 기능이 대부분 갖추어지고,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될 준비가 되면, 수업의 중점은 에듀넷 활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흥미 유발에 두어져야 한다. 깊이 있는 이해란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의 실제와 의미 있게 관련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호 작용을 경험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에듀넷 사용에 관하여 긍정적 태도 및 동기화 징후를 보이는 시기에 이르면, 수업의 중점은 학습자의 자율성 함양에 두어져야 한다. 이 시기는 학습이 성숙되기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일에 노력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간이므로, 교사의 지시 행동은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비슷한 취향의 학습자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탐구하게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주도로 필요한 지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활동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을 참관하거나 함께 참여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컨대, 학습의 초기에는 기초 기능 습득을 위한 교사의 지도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학습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교사 지도의 빈도를 줄이고 학습의 통제를 학습자 쪽에 위임하는 것이 에듀넷을 수업에 이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에듀넷 사용 예절

신 성 균

에듀넷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하여 종합적인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다.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첫째,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이용자들의 글을 읽는 것, 둘째, 대화실에서 다른 이용자와 대화 나누는 것, 셋째,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게시판 사용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 「수학교육론」, 「수학교육사」 외

● 게시판 성격에 적합한 글 :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리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글이 그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게시판은 나름의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게시판의 제목과 올려져 있는 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글이 어느 게시판에 적합한 지, 혹은 지금 하나의 특정한 게시판에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신의 글이 과연 그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의 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미삼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글 저글 닥치는 대로 봐도 괜찮은 이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읽을 목적을 가지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들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통신 경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용자들 이라면 누구나 적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듀넷이 '교육' 정보를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글이 이러한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적합한 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지만 한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여타 통신 서비스 기관에도 부적합하겠지만 에듀넷에서는 특히 피해야 할 것들이다.

● **신중한 제목 결정** : 자신의 글이 그 게시판에 적합한지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자신이 올릴 글의 제목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에듀넷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이 있다. 그리고 각 게시판의 글들에는 제목이 붙어 있다. 제목은 다른 이용자들이 그 글을 읽어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게 해 준다. 그리고 제목 검색 명령어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글들을 선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검색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와 가장 연관이 깊은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여 전체 자료를 검색하라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한사람 한사람이 게시물을 올릴 때, 보다 자신의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대표하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신중하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 게시판에 일렬로 서 있는 제목들만을 본다면 그 하나하나의 글들이 아무런 질서없이 놓여있는 게시물의 집합같은 그런 게시판일지라도 적합한 게시판에 신중하게 결정된 제목을 갖고 모인 글들이라면 현재와 앞으로의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창고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검색 명령어를 충분히 활용** : 이렇게 적절한 제목이 붙여진 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 명령어들을 숙지하여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정보들이 게시물로 올

라와 있지만 정작 정보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이용되는 빈도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 그 글이 현재의 화면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LT(제목 검색)' 'LI(ID 검색)' 'LS(번호검색)' 'LD(날짜 검색)' 등의 검색 명령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수준낮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은 게시물들이 점차 적어지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준높은 게시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각 개인 이용자들이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노력들을 할 때 그것이 모여서 게시판 글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게 되고 에듀넷은 더욱 풍성해지고 유익해질 것이다.

● **사적인 이야기는 전자 우편으로** : 그리고 특정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이용자 개인에 대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자 우편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사적인 이야기까지 게시판에 올려서 그 게시판의 성격을 모호하게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유의 게시물들이 동호회 내 게시판에서 많이 보인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교개가 꼬여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가진 게시판들이나 토론마당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사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게시판으로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 **글의 형식과 질에 신경을** : 통신상에서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 하나 하나는 바로 자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남이 아닌 게시판에서의 만남은 글의 문체, 글의 형식, 각종 문구를 빌어 만나는 것이다. 글을 올릴 때에는 맞춤법에 신경을 쓰고, 쉼표의 끝을 맞추어 단정한 형식을 갖추어 쓰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질과 형식 면에서 좋은 글을 작성하려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써서 올리 기 보다는 아무래도 작성과 편집을 미리 한 다음 접속하여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논쟁의 소지를 피한다**: 통신상의 의견 교환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다른 이용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글을 게시하게 되면 날카로운 비판의 글이 오가면서 뜨거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글에 혹시 독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몇번이고 읽어 보아 잘 검토하여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의견과 다른 글에 대해서 반박의 글을 올릴 때는 더욱더 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건전한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흔히 이것이 논쟁으로 비화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주의한다. 자기 의견이나 글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미덕을 갖추는 것은 통신 예절 중에서도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 **긴 글은 다운 받아서 읽는다**: 게시물이 길거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모든 게시물들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운받아서 읽는 습관은 다른 이용자에게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통신 인구가 많아지면서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온라인은 늘 바쁜 상태이다. 다운받아서 읽는 습관, 미리 편집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습관은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이 원

활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화실 사용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대화실 입퇴장시 서로 인사를**: 대화실에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와 있던 다른 이용자들에게서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고서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해 본 경험, 대화실에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와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야기에 열중해 있어서 멋적고 어색하여 곧 대화실에서 나와버렸던 경험은 통신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라도 흔히 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른 이용자들에게 인사도 없이 한두 사람에게 할 이야기를 하고서는 다시 인사도 없이 나가 버리는 이용자들을 접하고서 황당해 했던 경험도 역시 있을 것이다.



용건이 있어서 들어왔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고서 용무를 보도록 하고 이야기에 열중해 있더라도 새로 입장한 이용자에게 간단하지만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 하고서 다시 이야기에 열중하는 것이 대화실 사용 예절의 첫 코스라 할 수 있겠다.

● **높임말을 사용한다** : 에듀넷은 많은 초중고생들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초중고생 이외의 대학생, 교사들, 그외 일반 성인과 학부모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한 대화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같은 학교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느라 “야, 자”를 하고 간혹 친근한 사이에서 흔히 나누는 욕설까지 섞인다면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될 것이다. 에듀넷은 ‘교육’을 고리로 하여 함께 만난 사람들의 공간이다. 이런 유익한 공간이 한 두 사람이 생각없이 내뱉은 욕설이나 ‘야, 자’로 인해 비난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친구와 말을 놓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비공개 대화방을 만들어서 따로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반 대화실에서는 서로 친한 사이라도 다른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통신 예절이다.

● **얼굴을 맞댄 듯이 예절을 지키자** : 대화실에 들어오자마자 양해를 구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잠수를 시작해서 잠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나가 버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잠수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중요하고도 급한 이야기가 있다면, 들어오면 일단 인사를 하고서 “둘이 할 말이 있어서 잠시 잠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정도의 인사는 하고서 잠수를 해야 할 것이다(사실 일반 대화실에서는 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놓거나 퇴장 인사도 없이 대화실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밥 먹듯이 되풀이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서로 정말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많은 경우, 통화대기 상태이거나 여러 동호회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사다망(?)한 이용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사전에 미리 입퇴장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거나 정신이 어지럽도록 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 **기본좋은 대화가 되도록** : 올해 봄, 대화실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서 저속한 욕설을 듣고서 모욕감에 비판하여 자살을 한 여중생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친한 사이니까’, 혹은, ‘서로 얼굴도 맞대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화이니까’ 하고서 쉽게 내뱉은 욕설이나 비난이, 심한 경우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비판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

욕설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직설적으로 받아쳐서 반박을 한다거나 빈정거리는 투의 말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삼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표현 방식에 유의해서 대화실에 함께 있는 모든 이용자들이 즐거운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화실에 들어가 보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집합 같은 느낌을 주는 일이 흔하다. 대화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뜻이 아니겠는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쏟아 놓는 식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이용자들의 현재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공감과 흥미를 줄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화의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기 바란다.

셋째, 자료실 사용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건강한 자료를 올린다** : 상용 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이지 못한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듀넷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이 올리는 자료가 청소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유익한 자료인지 숙고하여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바이러스 점검을 하여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 사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다른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내용에 대한 개요, 자료가 문서 자료가 아닌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 방법과 사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

●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자료를 올려준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메시지로 전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하면서 올린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의라 하겠다.

● 적절한 자료를 다운 받는다: 에듀넷 이용자들은 에듀넷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에듀넷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정보의 세계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를 호기심으로 다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는 유익한 정보들도 많지만 교육적이지 못한 정보들도 적지 않다. 자료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건강하지 못한 자료들을 접하게 되는데, 에듀넷 이용자라면 특히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거나 다운받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 사용의 경우에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공동 사용의 경우: 에듀넷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 공동의 컴퓨터와 공동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여 에듀넷을 이용할 경우 그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에듀넷 이용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밝혀 글을 올리고 다른 공동 이용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해 이용 시간도 최소화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여 올린 다음 하드를 정리하는 작업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른 통신망과는 달리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에듀넷은 그야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에듀넷은 이윤을 추구하는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정보, 그리고 교육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다 만족스럽고 유익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은,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에듀넷 이용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신 예절을 잘 지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유익이 되는 에듀넷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다단계 교원 자격제도

교원자격제도의 세분화:
수석교사제 도입되어야



이 윤 식(인천대학교 교수)

현행 교원의 자격·승진체계는 교수직(2급 정교사·1급 정교사)과 관리직(교감·교장)의 일원적 구조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격·승진체계는 평교사로 하여금 교직 생애의 목표를 관리직인 교장·교감에 두도록 조장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교사의 본래 주요 직무인 가르치는 일과 직접 관련되어 좀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직위로의 승진제도가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 관리 행정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승진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교장·교감으로 승진해야만 유능한 교원이고,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평교사의 자격구조에서도, 수업과 학생 이해·지도 등 교직 전문성을 심화·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 교원들은 교대와 사대 등 교사 양성기관 졸업 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칙에 신규로 채용된 이후 대체로 5년 내지 늦어도 10년 기간 안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면, 그 후에는 본인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을 위한 자격연수를 받지 않는 한 별도의 자격연수를 받지 않고도 정

년시까지 교직에 머무를 수 있다. 즉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이후에 관리직인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의 기회는 있으나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수의 기회는 없는 형편이다.

교원자격제도가 교원들로 하여금 관리 행정직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으로의 승진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승진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교장·교감의 자격취득과 임용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젊고 유능한 교원이 교장·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교원들의 생애목표를 이원화하여 현재와 같이 평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가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즉 교원자격단계제를 현행의 관리직 지향에서 벗어나 ‘관리(managing)’와 ‘교수(teaching)’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 교사」의 교수기능 자격체계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교감→교장」의 관리기능 자격체계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까지는 교수기능 자격체계나 관리기능 자격체계가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되 선임교사에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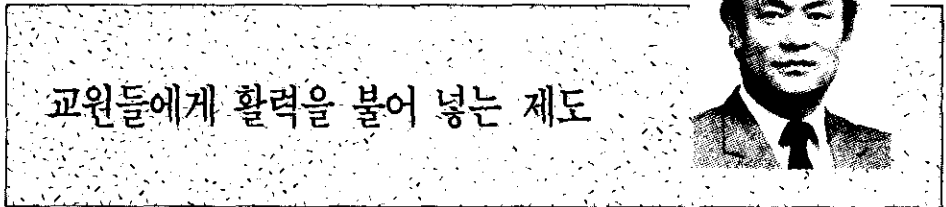
선임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계속적인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교장·교감 및 신설되는 수석교사외에 다수 교사에게도 자격 변경을 통한 자아실현·육구충족의 기회를 부여하며, 주임 교사의 보임 임용을 위한 자격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다. 선임교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2급 및 1급 정교사와 같으나, 주임교사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과전문가로서 수업 및 임상장학 참여, 수업기술과 방법 및 자료 개발, 현장연구와 교내연수 지도, 학교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자격 변경을 위한 최저 소요기간은 1급 정교사 자격은 2급 정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갖고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선임교사 자격은 1급 정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수업능력을 포함한 근무성적을 참작하되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선임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지역별 교원인사관리위원회의 전형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수석교사의 정원은 소수 정예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10% 정도까지 확대하여 나가면 될 것이다.

수석교사의 교장·교감 간의 연계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체제 이원화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며, 전문성 확보 측면이나 수석교사제 도입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기제가 적용되는 교장이 각자 사정에 따라 수석교사를 희망할 경우 원래의 선임교사를 거친 입장에서 수석교사가 되는 기본 요건을 갖추어 그에 합당한 전형을 거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양 종 구(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지역 교육청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 여러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50여 학교가 나름대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독특한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젊은 관리자가 경영하는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역동적이고 학교 분위기가 생기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이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관리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곤 했다.

그런가 하면 '40년이 넘게 교사로 봉직했는데 교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연공우대 승진제도로 개선되어 원로교사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접할 때면 교직을 천직으로 믿고 평생을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송구스럽고 안쓰러운 마음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위의 두 예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면서도 지금의 제도로서는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 까닭은 교장 임기제 실시로 조기 승진을 피하고 가능하면 임기에 맞춰 승진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거의 60세에 가까운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교장의 배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였고, 또 지금과 같이 관리자로서의 승진이 어려운 현실에서 교직에 오래 봉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로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다단계 교원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교사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직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젊고 유능한 '교사가 교감 또는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능한 교원들이 상위자격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매 단계별로 5년 정도로 하여 40대 초반에 교감이나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같은 제도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 우리 교육 현장은 젊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변모되어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1정 자격연수(2정 자격 취득 후 5년 정도)를 마치면 상위자격 취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인체제가 없었던 점에 반해 1급 정교사, 선임교사, 수석 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전문적 능력의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점은 전문적인 교사로서 항상 새로운 교육 이론 및 정보에 접하게 하여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단계 교원자격제도의 무리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현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교감, 교장이 되어야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급 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교원들의 승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1급, 선임, 수석 교사로 이어지는 자격취득에 교감, 교장으로로서의 승진에 버금가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취욕구는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승진에 버금가는 대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교장 임기제는 과거에 촉망받던 젊고 유능한 교감, 교장들에게는 의욕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놓고 전건공공해야 하는 처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다단계 교원자격제도의 시행으로 40대에 교감, 교장이 되는 젊고 유능한 교원들에게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단계 교육제도 도입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교육을 성공으로 이끈 열쇠는 교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말이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21세기에 우뚝 선 조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은 유능한 교사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유능한 교사의 확보와 그들이 신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교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교장·교감은 보직으로 되어야



오 희 철 (성남시 서현초등학교 교장)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다들 말한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승진 제도라는 것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가장 좋은 예는 의사를 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도 승진 제도가 있는가? 예를 들어 의사는 수석 의사가 되기 위해 아니면 병원장이 되기 위해 평생 환자들을 돌보는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전문직이라면 그것의 권위를 직책이나 직급에서 찾는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직종은 몰라도 전문직이라면 그 권위는 바로 그 분야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을 잘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 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병원장이라고 해서 권위가 더 있고 일반 의사라고 해서 그 권위가 덜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권위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교장으로 승진하면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것에서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교사의 권위는 자기가 맡은 아동들을 잘 지도하는 데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교사보다는 교감이, 교감보다는 교장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받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바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모든 제도가 승진에 맞추어져 있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전문직에서 승진 제도를 만들어 놓은 직종은 교직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교직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교감을 꿈꾸며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교사로서 부단한 노력을 수업의 지도 기술이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는 데 쏟아야 하는 것보다, 벽지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 연구 점수가 몇점이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평생을 교감이나 교장을 꿈꾸며 하 세월한다. 어쩌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좁은 공간을 향해 평생을 보내는지도 모른다. 의사가 자기 승진을 위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있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교사의 다단계 승진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승진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보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격 제도라고 해야 옳다. 예를 들어 2급 정교사

보다는 1급 정교사가 모든 이들에게 그 권위를 더 인정 받아야 하고, 1급 정교사 보다는 수석교사가 사회적으로 권위를 더 인정 받는 풍토가 시급하다. 교장이나 교감은 현 제도에서도 누구나 일정 경력만 쌓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법대로 승진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예를 들어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4년 이상을 근무하면 교감이 될 수 있다는 법은 있지만 실제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승진한 적은 없다. 이것 자체가 교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고 남다른 지도 기술과 학식을 갖추었을 때 상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하나의 보직으로 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은 전직이라고 보아야 더 마땅하다. 교사가 바라는 바가 오직 교장이라는 틀에 얽매이는 승진 규정이 있는 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는 지켜질 수 없으며, 승진 적체라는 고질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 노력의 대가에 따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볼 때 진정한 승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장이나 교감이 교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직위라는 권위주의적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교육은 지시나 명령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에 의해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제에 의한 수석교사제가 필요한 시대



이 인 규(성동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우리 교육개혁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교직의 다단계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올바른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도 교직은 직급화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교직은 (준교사 →)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학교장으로 직급이 분류되어 있으며, 직급은 아니지만, 사실상 중간 직급인 주임교사(부장) 치도가 존재한다.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2급 수석교사 → 1급 수석교사 등으로 다단계화하려는 교개위의 안은 이 점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것이다. 먼저 2급 수석 교사라는 중간 직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학교장이 아닌 다른 상위 직급(1급 수석교사)이 만들어지

는 체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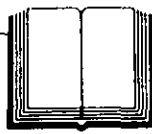
따라서 다단계화가 직위 상승을 위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경쟁의 통로를 넓힐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석교사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좁은 경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2가지의 통로를 만듦으로써 교직이 갖는 직무의 다원성, 다양성을 여는 기초가 된다.

둘째, 다단계화는 사실상 교사들의 선택적 지위 상승을 결과한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6급 공무원이냐, 7급 공무원이 하는 교사의 직위 평가를 고려한다면, 수석교사에 해당되는 연로하신 교사들의 지위 상승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수석교사에게는 다른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재경원에서 수석교사제로 인한 1백8억원의 교육부 예산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수석교사제로 인한 교사의 차별적 지위 상승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문제는 수석교사로의 승진 체제를 능력제로 할 것인가, 연공서열제로 할 것인가, 수석교사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교감·교장 충원 체제와 같이 능력제로 하고, 현재 교감·교장의 수와 같은 수로 수석교사를 충원하려 한다면, 수석교사제가 갖는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역시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경쟁은 이제 수석교사로의 승진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경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직의 다단계제를 추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먼저, 연공서열제에 의한 다단계가 필요하다. 굳이 경력에 의한 승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연수 경험 및 연구 점수와 같은 객관적이면서 교육적인 서열화에 의한 승진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전반적인 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점진적 중간 단계로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칙 교사들의 낮은 직무 만족감, 예비 교사들의 낮은 질을 고려한다면, 노동 시장에서의 대기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교직 선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교사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모든 교사에게 많은 대우를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을 주저하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선택적인 지위상승을 위한 교직 다단계화는 마땅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수석교사제 필요 예산 1백8억원의 요구액조차 삭감한 재경원의 처사는 한심한 것이다. ‘연공서열제에 의한 수석교사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이 시대의 교원 정책의 하나라는 점, 우리 모두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Ⅱ

황 규 호

1. 서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은 지난 1988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1989년 3월 처음으로 고시되었으며, 그 후 그동안 크게 두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첫째 개정은 1991년 12월 수학과 과학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육과정 문서의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즉, 이 시기의 개정은 학습 영역(성취 목표: Attainment Targets)의 수를 대폭 통합하여 축소하고 학습 내용의 제시방식을 새롭게 하는 등,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하는 데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학습내용이나 그 양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두번째 개정은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국가교육과정평가원(SCAA)의 의장인 론 디어링 경(Sir Ron Dearing)에 의해 추진되어 1995년 1월에 고시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 개정 작업은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의 폭도 대단히 커서 개정된 새 교육과정은 이

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1995~6학년도 신학기(1995년 8월 1일 기준)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 두번째 교육과정 개정에 의한 새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영국의 새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 보는 것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영국의 최근 교육과정 개정은 무엇보다 국가교육과정 도입 이래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점, 즉 국가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소화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과,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국가평가 제도가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 부담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비판의식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인 만큼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는 영국 교육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에는 시안의 인쇄 및 배포 비용을 포함하여 거의 2백만 파운드(약 2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CAA, 1994, p.1). 개정안은 대체로 교사들로부터 이전의 교육과정보다 발전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이 학습량의 축소를 통해 학교의 재량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점과, 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교사들이 수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보다 명료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교육과정 운영방식상의 크고 작은 변화들은 교사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새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앞으로 2000년까지는 국가교육과정을 더 이상 대폭 개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3. 새 국가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새 교육과정은 과목별 학습내용의 양을 축소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규정을 제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재량의 폭을 넓혀준다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먼저 1995년에 개정 교시된 새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CAA, 1995 참조).

○ 교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습 내용의 양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들을 제거하였다. 그 결

과 단계 1~3 기간 중에는 대체로 1주일에 1일 정도(전체 수업시수의 20% 정도)의 시간을 단위 학교 재량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목의 종류 및 선택, 필수 구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이라는 교과명으로 통합되어 제시되었던 '디자인 및 기술'(D&T: Design and Technology)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학습 내용이 각각 별도의 교육과정 문서로 독립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단계 4(중등학교 5~6학년)에서는 역사와 지리가 모두 선택교과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두 과목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또는 두 과목을 각각 절반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음).

○ 문서 체제 및 형식상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즉, 학습 프로그램과 성취목표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복잡성을 감소하고, 가르쳐야 할 지식, 이해, 기능을 명료하게 하였으며, 실제 수업계획은 '학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단편적인 지식 기능을 나열해 놓았던 수준별 '세부성취 목표'가 수업내용의 단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각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능력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수준개요(Level description)'를 도입하였다(총 966개의 세부성취목표를 200여 개의 수준개요로 감축).

○ 단계 4(KS4)에서의 학생수준 평가에서는 '10개의 수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GCSE 등급(A-G)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준은 모두 10개에서 8개로 감축되었으며,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 수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총 9개 수준).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 새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을 (가) 과목 편제, (나)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및 문서체제, (다) 학습프로그램 및 학습 내용 제시 방식, (레) 성취목표 진술방식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과목 편제상의 변화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과목편제를 살펴보면, 잉글랜드의 경우, 교과목은 10개(웨일즈의 경우 11개)의 기초 교과(Foundation subjects)로 구성되는데 그 중 영어, 수학, 과학은 핵심 교과(Core subjects)로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이외의 기초교과는 역사, 지리, 기술(Technology),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이다(웨일즈 지역 학교의 경우는 웨일즈어가 핵심 또는 일반 기초교과에 추가된다). 이상의 교과 중 외국어는 초등 학교 과정인 단계 1과 단계 2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계 4에서는 음악, 미술은 선택교과가 된다.

1995년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역사와 지리 교과 역시 단계 4에서는 선택교과로 바뀌었다. 국가교육과정 도입당시 이 두 과목은 단계 4에서도 두 과목 중 하나를 정규코스로 가르치든지 또는 두 과목 모두를 단축코스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역사와 지리가 단계 4에서 선택 교과로 바뀐 것 이외에도 199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교과의 교육과정이 '디자인 및 기술'과 '정보 기술' 등 2개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문서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1993년에 개정된 교육법은 중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종교교육과 같이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교과영역으로 규정하였는데(Education Act 1993, 241절), 다만 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으며 대신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나름대로의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는 원할 경우 자녀가 성교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국가 교육과정의 과목편제를 표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영국(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의 과목 편제 (1995년 현재)

과목명	KS1	KS2	KS3	KS4
영 어	○	○	○	○ 의무적으로 GCSE시험에 응시해야 함
수 학	○	○	○	○ 의무적으로 GCSE시험에 응시해야 함
과 학	○	○	○	○ 의무적으로 GCSE시험에 응시해야 함 (초급 또는 중급 공통과학, 또는 물리, 화학, 생물로 분리 이수)
역 사	○	○	○	선 택
지 리	○	○	○	선 택
기 술 (디자인 기술)	○	○	○	(단축코스 가능)
기 술 (정보기술)	○	○	○	○
음 악	○	○	○	선 택
미 술	○	○	○	선 택
체 육	○	○	○	○
외국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단축코스 가능)
종교교육	필수이지만 국가교육과정은 아님			
성교육	학교운영위원회가 포함여부 결정		필수이지만 국가교육과정은 아님	

주: 1) 소규모통합과학(single science)이란 중규모통합과학(double science)의 절반 정도의 학습량만을 다루는 것으로, 중규모통합과학을 이수한 후 GCSE시험을 볼 경우 이는 2개 과목의 시험과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
2) 단축코스란, 제시된 교육과정의 절반 정도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함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과목별 시간 배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1995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그동안 국내에서 영국의 교육과정을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상당한 학습내용을 제시해 주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해석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준별 '성취목표 진술'을
교육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링은 기초 보고서를 통해 과목별 시간배당에 대한 대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디어링의 지침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표 작성을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시 학습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Dearing, 1993, p. 30, para. 4, 10).

디어링의 단계별 과목당 시간 배당기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적인 요소는 학교별 재량시간이 확충되었다는 점으로, 단계 1~3에서는 총 수업 시간의 20% 정도, 단계 4에서는 40% 정도를 재량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량시간은 무엇보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교육과정 도입 초기 단계부터 약 20%의 시간은 단위 학교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상의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초기의 국가교육과정의 학습량은 지나치게 많아 단위학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점이 교사들의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3~1994년 중에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학교의 재량 시간 확보를 위한 학습량의 감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실지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 과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재량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각 학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Dearing, 1993, p. 38, para. 4.46 및 para. 4.47), 학교는 이 시간의 활

용 방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마련하여 장학지도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디어링은 이 시간이 특히 초등 학교 단계인 단계 1~2에서는 기초 문해력과 언어 능력 그리고 산술 능력을 기르는 데에 쓰여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장은 무엇보다 이들 기초 능력이 이후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특히 단계 1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 이외의 국가교육과정상의 기초교과를 심화학습 시키는 데에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학교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단계 2(초등학교 3~6학년)에서도 이 시간을 외국어 교육에 할당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단계 1에서는 교실상황에의 적응교육이나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다루도록 되어 있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진로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학교재량 시간은 예컨대 제2외국어와 같은 국가교육과정 이외의 교과목에 할당될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교부금에 의한 자치학교'(Grant Maintained School)들은 이 시간을 예를 들어 과학이나 예능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집중적으로 할애할 수가 있다.

5. 교과별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및 문서체제상의 변화

새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 몇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교육과정 문서에 비해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다 상세화되고 체계화된 반면, 학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인 수준별 성취 목표진술이 보다 단순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문서의 체제가 단순화되었으며 과목간 문서 형식상의 일관성이 높아졌다.

새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크게 학습프로그램(Programmes of Study)과 성취목표(Attainment Target)로 구성된다. '학습프로그램'이란 각 연령 단계(Key Stage)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기술 및 학습의 과정(즉, 학습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교육개혁법, 제1부, 제1장, 2절 참조), 여기에는 교과별 주요 학습내용이 학습영역별 및 연령단계(Key Stage)별로 제시되어 있다(영어, 수학, 외국어 등의 교과에서는 단계 3과 단계 4의 학습 프로그램이 함께 묶여서 제시되기도 한다). 학습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학습 경험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반면에 '성취목표'란 각 연령단계 말에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술 및 이해의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교육개혁법, 제1부, 제1장, 2절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각 단계 말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는 요소이다.

즉 성취목표란 각 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실제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에 있어서 활용되는 평가의 준거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준거로서의 성취목표는 현재 9개의 상이한 수준(수

준 1~8 및 우수 수준)으로 구분되어 제시되며, 단,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경우는 단계말 성취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의 교육과정은(또는 적어도, 특히 1995년에 개정된 새 교육과정은)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해된 것과 같이 능력에 따라 다른 학습내용을 제시해 주는 이른바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학습내용을 규정해 주는 학습프로그램은, 적어도 현재의 교육과정 문서에 있어서는 학생의 성취수준과는 무관하게 각 연령단계별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교과에서는 학습프로그램이 각 연령 단계별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다시 말하여, 수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평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비록 각 단계말에서의 학생들의 실제 성취도에 관련된 성취 목표가 여러 개의 수준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일 뿐, 그 자체가 학습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 학년말에 학생의 성취도를 예컨대 수, 우, 미, 양, 가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곧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각 등급별로 학습 내용을 달리 규정해주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영국의 교육과정을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상이한 학습내용을 제시해 주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해석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준별 '성취목표 진술'(statements of attainment)을 교육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기존의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경우도 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생의 성취수준과의 관련

속에서 상이하게 제시되기도 하므로, 적어도 이 두 교과목의 경우는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학습 내용이 달라지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상 수준별 성취목표 진술을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영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이에 교사들은 종종 그들의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준별 성취 목표를 근거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SCAA, 1994 a, p. 6 참조). 이러한 오해는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문서가 '학습프로그램'(programmes of study)과 '성취목표 진술'(statements of attainment)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습내용으로서의 '학습프로그램'보다는 각 영역별 성취목표의 세부진술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 문서는 각각의 요소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료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수업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학습프로그램이 주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비록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을 규정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연령단계별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차 문제를 고려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서문에 담겨 있는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각 연령단계별 학습프로그램은 그 단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가르쳐져야 하지만 그 가르치는 방식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일부 소수의 학생들의 경우는 전 단계나 이후 단계의 학습프로그램의 내용도 가르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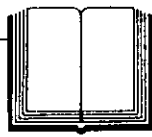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같은 연령 단계의 학생이라도 그 성취수준에 따라 내용의 깊이를 달리하거나 또는 학습 내용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영국의 현행 교육과정은 비록 연령 단계별로 공통된 학습 내용을 다루도록 요구하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황규호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선형적 세계관의 변화 가능성과 자유 교육」 외



독일의 방과후 프로그램 [2]

정미리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연령혼합집단 속에서 방과후의 초등 학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기관과 초등학교 내의 호르트인 '취학아동의 집'에 관하여 소개를 하겠다.

1. 통합아동교육기관(Kindertagesstätte)

1-1) 연령혼합집단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3세 이하의 아동들을 가정 이외의 기관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신생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들을 혼합시킴으로써 연령혼합집단을 발달시켰고, 약 15년 전부터는 독일 전역에 확산되었다.

1개의 연령혼합집단에는 생후 4개월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 15명, 그 15명 중 8명은 3 내지 6세 아동, 그리고 3세 이하의 아동은 7명 이하여야 하며, 그 7명 중 젓먹이 유아는 2명 혹은 3명 이하여야 한다. 이 15명의 아동들은 최소한 3명의 성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 3명은 교사 1명(혹은 사회교육 전문가 1명), 보조교사 1명, 실습교사 1명(혹은 소아전문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 교사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적, 의학적, 위생적 관계 내에서 타당하게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방침이다. 연령별 집단의 교사들에 비해 이 연령혼합집단의 교사들은 젓먹이 유아들이나 어린 아동들의 보호 요구와 여러 종류의 필요에 좀더 쉽게 자주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혼합집단의 유아들이 연령별 집단의 유아들보다 심한 질병에 걸리는율이 더 낮고, 덜 자주 아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아동들은 신생아기부터 취학시까지 같은 교사와 같은 집단 안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는 교사와 부모들 간의 협력 작업에 있어서도 연속성을 가능케 한다. 어린 아동들은 좀 더 큰 아동들의 시범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큰 아동들은 작거나 약한 어린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돕는 정신과 감정이입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들은 어린 아동들을 도울 때에 그들 스스로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본다. 각 아동은 스스로 여러 종류의 역할을 차례로 경험하고(막내, 중간, 만이의 역할), 발달이 늦은 아동들은 더 어린 아동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발달 자체를 끌어 올리고 자신감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같은 집단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같은 연령혼합집단을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

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3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을 고루 배치한다.

1-2) 빌레펠트(Bielefeld)의 노동자복지연맹 부설 통합아동교육기관(Kindertagesstätte der Arbeiterwohlfahrt)

출장 팀이 빌레펠트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1983년의 가을에 필자가 이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처럼,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감회에 젖을 사이도 없이 호텔로 짐(각 유치원에서 얻은 자료들)을 나르고 중국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다. 오후 6시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 갑자기 거리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거리는 적막에 휩싸이는 독일의 소도시의 분위기에 필자는 이미 익숙해 있지만, 출장팀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불안해 하였다. 뒷날 아침, 목적지로 향하는 택시는 빌레펠트 대학교의 캠퍼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산 중턱길을 달리고 있었다.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킨너(Skinner)의 소설 「Walden Two」(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적 이상사회」로 번역)를 연상케 하는 매우 기능적인 공동체적 건물 속에서 필자는 유학 초기 시절을 보냈었다. 경제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적으로 풍요로운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로이 개발되고 있고, 교육적 혜택도 다른 주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통합아동교육기관의 외관(사진 1)은 마치 아랍 유목민들의 대형 천막처럼 보였다. 1991년 9월 1일에 개원한 이 기관에서는 생후 4개월부터 14세까지의 아동 55명과 13명의 성인들이 650m²의 실내 공간과 그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야외 놀이 공간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다. 평면도가 오각형인 이 건물은 일조시간이 부족한 독일 북부의 기후를 특히 고려하여 아래층의 정남쪽, 서남쪽, 동남쪽의 방향에 아동들의 놀이방을 배치하였다. 불가사리 반, 청어 반, 해파리 반의 3개 반으로 나뉘어 있어서 각 반이 한쪽 면을 차지하였고, 북서쪽과 북동쪽은 성인들이나 기타 활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하였다. 건물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계단(사진 2)도 오각형의 모양을 교묘히 유지하며 2층으로 오르고 있었다. 2층에서도 역시 남쪽 부분은 3세 이상의 아동들이 낮잠 자는 방과 작업실을 배치하였고, 북쪽 부분은 실내 체육실 등을 배치하였으며, 계단의 중간이나 아랫부분 뿐만 아니라 난간이 있는 지붕밑 회랑(사진 3, 4)도 활용하여 실내 놀이 공간을 최대화하였다. 비가 자주 오는 독일 북부에서는 아동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교사들도 '놀이방 꾸미기'에 관한 2박 3일의 연수를 받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실내 놀이공간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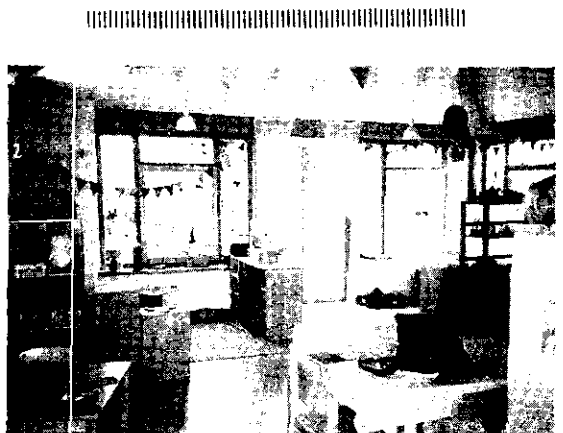
- 탈중심화된 영역들(영역별 분리 뿐만 아니라 아동이 아무 것도 안하고 숨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함)
- 바닥이나 천정의 높이가 다양해야 함(기존 건축물이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을 때에는 간단하

나무 단상을 이용하거나 대형 천을 이용할 수도 있음)

- 실내장식 자재의 소재가 다양해야 함(목재, 천, 카페트, 유리, 아크릴……)
- 가구의 다용도화(한 가구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고, 필요시 가구를 이동하여 넓은 공간사용을 가능케 해야 함)
- 탄성을 이용하여 뛰어놀 수 있는 기구들(쿠션, 매트)
- 물놀이 공간

아래층에 있는 각 반의 놀이방으로는, 독일의 다른 통합아동교육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이 아니라 하나의 아파트가 주어진다. 야외 놀이공간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한 쪽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넓은 거실 1개(사진 5, 6), 작은 방 2개, 화장실, 탈의실, 창고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는 현관문을 항상 개방하여 다른 반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해파리 반에 레고나 나무토막쌓기 놀이 도구가 많으면, 불가사리 반에는 공룡에 관련된 자료가 많다든지 하는 식으로 놀이감을 배치하여, 그것을 찾아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였다.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이 기관에는 오전 동안에



[사진 5]



[사진 6]



[사진 7]



는 6세 이하의 아동들만 있다가 12시 15분경에 점심식사를 한다. 12시 45분부터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까지 다 함께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2시부터 초등학교 아동들은 숙제를 하며, 어려운 부분은 교사의 개인적인 도움을 받고, 색맹, 말더듬이, 발달이 늦은 아동은 이 기관에 배정된 특수 교사 1명의 개인적인 지도를 받는다. 숙제를 끝낸 아동들은 이 기관 내의 모든 장소를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놀이를 하거나, 목공일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며 공동체 속에서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받는다.

어린 아기에게 이유식을 떠먹이는 초등학교 아동과 아기를 팔에 안은 채로 아동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 주는 교사의 모습은 평화로운 가정의 정경을 떠올린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여 연령혼합집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위하여 한 반의 교사 3명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 다음 일주일의 교육계획을 의논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전체 교사진이 모여서 각 반의 교육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다.

빌레펠트의 통합아동교육기관처럼 독일 전역의 모든 기관들이 다 넓은 면적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 7에서처럼 뒷면이 뚫린 책꽂이를 천장에서 바닥까지 설치하고 아랫부분은 아동들이 사용하고 윗 부분은 성인들이 사용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영역별 분리를 한다. 벽의 역할을 하면서도 채광을 방해하지 않는 이 구조는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또 장려되고 있다. 사진의 전면에는 3 내지 6세 아동들이 미술 작업을 하는 광경이 있고, 오른쪽의 창가에는 교사와 함께 서양장기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있으며, 사진 중앙의 책꽂이 뒷면의 검은 옷을 입은 교사는 초등학교 아동의 숙제 지도를 하고 있다.

연령혼합집단에서의 실내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들의 공동생활을 지지하며, 동시에 휴식 및 각종 활동의 욕구에 적합한 일시적 분화를 가능케 해야 한다. 단, 커다란 연령 차이가 있는 이 아동들의 천차만별의 요구와 능력은 교사에게 폭넓은 지식과 유연성 있는 교수방법을 갖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답하기 위해 1981년부터 SPI에서는 교사 지침서를 세부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2. 새로운 모델 : '취학 아동의 집' (Schulkinder-Haus)

1세기가 넘도록 호르트를 운영해 온 독일에서도, 최근 들어 갑작스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

요 증가의 원인으로는 편부모의 증가, 외동아동의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급격히 변화해 가는 아동들의 삶과 경험의 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현재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취학 아동의 집’은 청소년 원조 기관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 프로젝트로서 쾰른(Köln)의 SPI(‘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유아교육 및 방과후 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연구소’)와 조오스트(Soest)의 ‘학교와 계속 교육을 위한 연방연구소’가 이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탁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1992년부터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9개의 시와 2개의 서클이 20개의 ‘취학 아동의 집’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각 기관들은 시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설 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취학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자료 사진을 제공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대신 이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입수하여 소개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2-1) ‘취학아동의 집’의 약관

‘취학아동의 집’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취학아동의 집은 1 내지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고, 1개의 그룹은 20명의 아동을 초과할 수 없다.
- 아동들은 가능하면 모두 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 각 그룹 당 2명의 사회교육 인력이 배치된다.
- 취학아동의 집의 개방시간은 7:30부터 18:00까지로 확정된다(실제적인 개방 시간은 부모와 학교측의 협의 하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공적인 휴일을 제외하고, 방학기간에도 취학아동의 집은 개방한다.

— 취학아동의 집은 청소년 원조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을 한다.

— 취학아동의 집의 각 그룹 당 1개의 방(과거의 교실)이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주어진다.

— 각 방은 아동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된다(예: 영역별 분리).

— 학교의 다른 방들(예: 작업실, 음악실, 체조실)은 취학아동의 집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 취학아동의 집은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GTK(아동보호에 관한 법령)를 토대로 한다. 즉, 부모위원회와 기관 추진위원회는 이 약정에 준한다.

2-2) 취학아동의 집과 학교와의 공동작업

프로젝트의 전단계와 초기 단계에,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공동 작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시작되었다.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종일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는 명백한 인식 때문에, 첫번째 모임에서부터 특히 학교장들의 취학아동의 집과의 공동작업에의 관심은 넘쳐 흘렀다. 학교장들의 노력과 더불어 SPI, 청소년청, 연방 청소년청, 건축분야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학교 내부에, 아동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취학아동의 집이 있다면, 그 기관의 교사는 SPI의 지지와 전문 상담원의 도움으로 과거의 교실을 제 2의 집처럼 안락하게 창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아동들은 그 속에서 평온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취학아동의 집은 배움, 여가시간 조성 등이 아동에게 적합한 리듬으로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의 인력과 사회교육의 인력이 함께 계획하고 토론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간의 필수적인 협력은

공간적으로 가까이에서, 단기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취학아동의 집과 학교와의 공동작업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과 SPI의 작업 서클

—학교 교사들과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 간의 비형식적인 만남(여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됨).

a. 짚막한 대담, 학교 교사들이 취학 아동의 집의 활동 참관

b. 학교 교사들의 취학아동의 집 방문(아동들과 함께 놀거나 점식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c. 교무실에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함께 함

d. 학교 교사들이 취학아동의 집에 '커피 한 잔' 하러 자유시간에 옴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이 학교의 교무회의에 규칙적으로 참가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이 '취학아동의 집'이라는 의사일정에 관한 교무회의에 참가

—학교 교사와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의 규칙적인 토론(매주 혹은 격주제로)

—학교 방들의 공동 사용(예: 체육관, 연극실, 영화실, 작업실)

—자료교환(예: 학교의 로울러 스케이트를 취학아동의 집에 빌려 줌)

—축제나 부모의 밤을 공동으로 개최

—기관 내부의 모임(예: 니콜라우스 축제, 학교 소풍, 취학아동의 집의 문 개방의 날)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축제에 참가

—교정(정원시설)의 조성을 공동으로 계획

—학교의 특별회의(교육적 테마를 가진)에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이 참석

—한 지역의 모든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 학교교사들, 학교장들, 전문 상담원들의 작업 서클

학교교사들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서 취학아동의 집 교사로 신청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경우, 대부분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동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수업 조정 및 진행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수업 내용, 숙제의 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전문 대담의 신청이 취학아동의 집 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현직 초등 교사들의 방과후 지도자로서의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다. 자칫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비용이 저렴한 과외로 여기기 쉬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교육목표 전반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독일인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엿보며, 우리의 반성할 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미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열린 교육 열린 운동회

— 동해 중앙초등학교 편 —





학교탐방 동해 중앙초등학교를 찾아서

열린 교육 열린 운동회

이 종 태 (본원 연구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련한 추억 중에 아마도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펼럭이는 만국기, 용진문과 개선문, 청군과 백군의 열띤 응원, 온갖 장사치들의 외침, 가슴 두근거리던 달리기와 흥겨운 율동, 푸짐한 상품…… 그러나 이와 함께 9월 한달 내내 피약벌 속에서 운동회 연습으로 녹초가 되었던 일, 막상 운동회 날에는 서너 번 게임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지루하게 응원석에 앉아 응원하느라 목이 쉬었던 일, 달리기에서 3등 안에 못 들어 상품도 별로 못 타고



그나마 자기 편이 저서 팬스레 속상했던 일 등도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개념의 운동회를 구상, 실현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

다. 강원도 동해시의 중앙초등학교. 이 학교는 종래의 운동회라는 이름을 '동해중앙 가을축제 한마당'으로 고쳐 짓고, 경쟁과 보이기 위한 운동회를 아이들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탈바꿈시켰다.

아파트 촌을 주변에 두고 앞에는 야트막한 산이 학교를 아늑하게 가려 주는 동해중앙초등학교는 반세기 역사에 30학급 1,200명 정도의 규모로 강원도에서는 제법 큰 학교이다. 이미 잔치는 시작되어 운동장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모자를 내 손 안에'(기마전)가 남녀 학생이 함께 참여하

여 진행 중이었고, 운동장 가에는 갖가지 코너가 마련되어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었다. 전면에는 학부형들과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풍물놀이, 의상쇼, 청사초롱 등으로 이루어지는 앞풀이 행사(시가 행진)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반갑게 맞는 김남정 교장 선생님은 비교적 큰 키에 마른 편이었다. 교장 선생님께 가을축제 한마당에 관해 대강 설명을 듣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을 수놓고 있는 ‘만국기’였다. 흔히 보는 문구점의 만국기가 아니라 온통 아이들이 만든 그림, 서예, 종이 붙이기 등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축제의 종목 선정이나 행사장 꾸미기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관하였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축제의 당당한 주체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또 여느 운동회와는 달리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춘 백군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신 학생들은 학년별 또는 반별로 사방에 있는 코너에서 팔씨름, 후프 돌리기, 고리걸기, 투호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널뛰기, 비석치기 등의 놀이를 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장터에서 떡볶이, 김밥, 쥐포, 아이스크림 등을 먹고 있었다(김용기 연구주임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학년별로 5가지 정도의 민속놀이를 지정하고 그 중 세 가지 이상을 끝낸 학생들은 보너스로 풍물시장의 먹거리 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군데 군데 설치된 불우이웃 돕기 또는 수재민 돕기 바자회 코너에는 학부형들이 학용품, 각종 완구, 옷가지들을 팔고 있었고, 옆의 풍물시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거의 모든 먹거리들이 팔리고 있었다. 잠시 쉬거나 발표를 위해 대기하는 학생들 외에는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기 어려웠다.





잠시 쉬고 있는 한 학생(6학년 김용환)에게 물었다. “운동회가 재미있니?” “예.” “전에 하던 운동회에 비해 어떤 점이 특히 좋다고 생각되나?”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우선 학년별, 조별로 하는 여러가지 코너 활동이 있어서 지루하게 앉아 지켜보는 시간이 적어서 좋고요, 평소의 학습발표회에서 했던 내용들이라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평소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운동회의 실체를 확인해 주는 말이었다. 학생 못지 않게 학부모들 역시 가을축제 한마당을 즐기고 있었다. 4학년의 학부모 한 분은 개인과 팀간의 경쟁을 없애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인 것과 민속놀이를 다양하게 도입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고, 먹거리 장터의 한 5학년 어머니는 학교 행사의 참여가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를 상호 구매함으로써 도시락 싸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수익금을 보람있

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부모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응원도 없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했어 보이는 점 때문에 종래의 운동회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 듯 싶었다.

이러는 동안에 운동장 안에서는 학년별로 다채로운 숨씨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고 운동장 가(트랙)에서는 6학년 학생들의 의상 쇼, 1학년 꼬마 신랑과 6학년 신부의 민며느리 맛이 행렬이 벌어지고 있었다. 병설 유치원의 막내둥이들의 재롱은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우야! 여우야!’ 놀이가 진행된 오후의 운동장은 글자 그대로 놀이마당이었다고 마지막 시간의 ‘다함께 춤을’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콩따리 샤바라’에 맞추어 신나게 노는 시간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전체가 모이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보이려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스스로 신나게 즐겼기 때문이었으리라.

'동해중앙 가을축제 한마당'은 이를 동안 열리는 행사이다. 첫날 운동회에 이어 둘째날은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평소 학년별 학습발표회에서 했던 사물놀이, 기악합주, 합창, 무용, 연극, 구연동화 등을 다듬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종합예술제 행사를 갖기로 되어 있었다. 일정상 아쉽게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잘하는 아이들 위주의 발표회를 지양하고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동해중앙 가을축제 한마당'은 이미 많은 학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 수백개 학교에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강원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유사한 방식의 운동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머지 않아 전국의 초등학교 운동회 방식이 종래와는 현격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운동회가 어떻게 실현되게 되었을까?

새로운 개념의 운동회는 기존의 학교 체육에 대한 김남정 교장 선생님의 오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일제시대에 성행했던 운동회 방식이 오늘날의 영상세대에게도 답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미 장학사 시절에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빛을 본 것은 재작년 가을 자신이 초임 교장으로 서 중앙초등학교에 부임한 이후의 일이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도 교원연수원 장학관으로서 수년간 연구했던 열린 교육을 정열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그 하나의 연장으로서 열린 운동회를 기획, 실천에 옮겼다. 가을 축제 한마당은 동해 중앙초등학교 열린 교육의 한 사례였던 셈이다.

'신사고 교육경영 27'로 명명되는 중앙초등학교의 열린 교육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교장의 소신과 열정이 어우러지는 생동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두드러진다. 전교 어린이회를 '동해 중앙어린이 독립국'으로 명명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에 의해 뽑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신문을 발행하고 학생들 의사를 결집, 학교에 건의하는 한편, 착한 어린이 상을 직접 선정, 시상하고 교지에 실을 작품을 직접 선정한다.

또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심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잘하는 것보다는 남다른 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탐구 조사활동과 '마음의 지도 (Mind Map) 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독창적인 사고력과 발표력을 기른다. 잠시 둘러 본 교실과 복도, 계단의 모든 벽면은 아이들의 각종 작품이 다 소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마음껏 발표하는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규격화보다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실의 배치 구조 역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물함에는 각자의 성취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자람 기록장'이 두툽한 화일 두 권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노력과 그 결과가 놀라웠다. 전 교원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선 협의 후 수업 연구, 그리고 다시 전체 토의에 의한 평가를 매달 두 학급씩 실시한 결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열린 교육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수업을 공개한 결과 지난 1학기에만 전국 각지에서 약 2천여 명이 학교를 다녀갔다고 한다. 또 채 2년도 안되는 기간중에 열린 교육에 관한 각종 수업과 연구 자료집 37종을 개발, 보급하였다.





한편, 중앙초등학교가 이처럼 열린 교육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빼놓을 수 없다. 김남정 교장 선생님에 의하면, 중앙 초등학교는 도내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학군에 속해 있다고 한다. 대체로 주변의 환경이 중산층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학년 학부모 200명 중 150명이 학부모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교육열과 참여도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효율적으로 교육에 동원한 김 교장 선생님의 방법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매학년 초에 학부모 회의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학교의 교육 방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능한 부모들을 '어머니 도

움 선생님'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기회에 교육의 보조자로 활약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을 축제 한마당에서 보듯이 그 성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

김남정 교장 선생님의 열린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

제2기 교육개혁위원의 한명인 그는 열린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할 만큼 열린 교육에 대한 신념이 대단하다. 처음에 교사나 학부모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웠다고 술회하는 김 교장 선생님은 표현력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태도 등 그동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이 자신의 신념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작년 가을 국립평가원

의 학력고사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성취 수준(주관식 부문 도내 최고)은 자타가 놀랄 만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오늘의 성과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양호한 학군의 탓으로 돌린다. 감성지수(EQ)개발을 위한 시설과 교내 TV 방송국 설립을 앞으로의 계획으로 꼽는 김남정 교장 선생님은 1,200명의 전체 아이들 중 2/3 정도는 이름과 얼굴을 함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깊다.

교실마다 29인치 TV와 실물 화상기, OHP 등을 갖추고 학년마다 복사기를 갖추면서도 정작 교장실은 여느 학교 교장실의 삼분의 일 정도 크기에 19인치 TV만을 두고 있는데서 또다른 열린 교육의 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 광장

천년을 산다는
두루미

글·사진·윤 무 부

▼ 우리 나라 휴전선(DMZ)에 매년 겨울철에 날아오는 세계적인 희귀조 두루미 가족.



*** 평화와 불로장생의 상징**

지리산 기슭의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에 청학동(靑鶴洞)이라는 마을이 있다. 몸빛이 푸르다 하여 청학이라고 불리는 이 새는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전설상의 새로, 이 새가 울면 태평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이 새가 사는 곳이 청학동이니, 이 마을의 풍광 또한 가히 신선이 살만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몸빛이 푸른 학이나, 꿈의 이상향인 말 그대로의 청학동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근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무릉도원을 그리던 선인들은, 신령스러운 새로 여겨지던 학을 연상하면서 청학동이란 전설상의 마을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학을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루미(*Grus japonensis*)가 된다. 멀리 떨어진 암수가 서로 사랑의 뜻을 전할 때나 동료끼리 신호를 할 때 내는 ‘뚜룩’ 또는 ‘뚜르룩’하는 울음소리에서 연유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학이란 두루미의 종류를 총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이 아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학의 종류는 많은 편이다. 키가 70cm로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큰 것은 140cm나 되고, 몸빛도 흑색 또는 회색을 띤 것도 있다.



▼ 새소리를 듣고 있는 윤무부 교수



- 글쓴이 약력
-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의 새」 「최신 한국조류명집」의



그 가운데 우리의 선인들이 진정으로 우러르고, 수(壽)와 복(福)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영물로서 떠받들었던 종류는 두루미이다. 단단하고 긴 부리와 연약한 듯 곧게 뻗은 목, 우아하고 날렵한 몸매와 더불어 눈부시도록 하얀 두루미의 모습은 백의민족이라 불리던 우리 민족의 순결한 품성과 잘 조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춤을 추는 듯한 우아한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는 두루미의 기품 있는 모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그러기에 두루미는 예로부터 신선의 세계와 신선만이 누리던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 하에서 예전의 벼슬아치들은 품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둘 또는 하나의 학이 그려져 있는 흉배(胸背)를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였고, 무인(舞人)은 학춤을 만들었으며, 화인(畫人)은 송학도(松鶴圖)를 남겼을 것이다.

천연기념물 202호이며 국제보호조이기도 한 두루미는 몸무게가 약 10kg이고, 몸길이가 약 140cm인 거구로 온 몸이 눈처럼 희다. 서 있을 때는 꼬리가 까맣게 보이는데, 이것은 검은 빛을 띠고 있는 날개깃의 끝이 날개깃을 접으면 꼬리가 흰 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황새의 경우와 같이 일부 일처로 평생을 사는데, 2~3월경이면 번식기를 앞두고 암수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때 부리를 하늘로 향하고 수컷은 한 번, 암컷은 두세 번 반복하여 마주 울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 두루미의 겨울철새 도래지에는 매년 80여 마리가 민통선에만 찾아온다.

있다. 특히 번식기에 암놈과 수놈이 마주 보고,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하면서 교대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천하의 명무(名舞)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동우리를 주로 넓은 초원의 개울가 등 갈대가 많은 땅바닥에 평평한 큰 접시 모양이나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주발 모양으로 만든다. 알은 하나만 낳는데, 두루미의 수가 적은 것은 번식력이 약한 것도 큰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동우리를 중심으로 2~7km 거리에서 경계한다. 이 범위는 곧 그들의 행동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름의 번식기에는 이 행동권이 극히

좁아져 산란 전의 20 내지 30분의 1 정도로 줄어 든다고 한다.

* 보호가 시급한 두루미

두루미는 20세기 초반 해도 소련의 동남부 시베리아, 중국 동북지방, 만주, 일본의 북해도 등지에서 많은 수가 번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인구의 팽창과 급진전한 산업화로 두루미가 살 수 있는 넓은 들판과 초습지들이 사라져 감에 따라, 아시아 동북부에서 살던 두루미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 매년 찾아오는 두루미의 번식지인 소련의 칸카 호수 부근에도 겨우 500마리 미만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두루미는 월동을 위해 만주 대륙을 거쳐 내려온다. 약 30년 전에는, 10월 말쯤 되면 압록강 하류의 평안도 서부 해안을 거쳐 황해도의 장연, 평산, 웅진, 백천 등지에 백에





▲ 비상중인 두루미 가족.

▼ 겨울에 휴전선 부근의 논에 무리를 지어 찾아와서 벼이삭과 물만 먹고 산다.

서 천단위의 큰 무리가 날아들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내륙지방이 모두 얼기 시작하면 더 남쪽인 충남의 예산, 당진, 삽교에까지, 그리고 12월에는 경남의 낙동강 하류의 들이나 전남의 목포 부근까지 내려가 겨울을 지내다 이듬해 3월이면 다시 번식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두루미는 매우 한정된 지역, 그것도 인적이 드문 유일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서쪽 부근에서 불과 100여 마리 정도가 겨울을 나고 있을 뿐이다. 즉 예전의 철원 군청이 있던 휴전선 내의 80여 마리, 인천 해안에 15마리, 그 밖에 휴전선 근처에 몇 마리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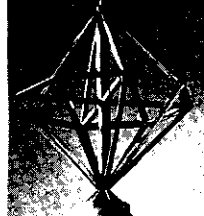
더욱 안타까운 일은 우리 민족의 기품을 상징하던 두루미가 우리의 정신 문화 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은 십장생(十長生)의 하



나로, 특히 소나무와 짝을 이루어 그림이나 문양의 좋은 소재가 되어 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은 생태학상 나무 위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무 위의 두루미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황새를 두루미로 오인한 것이다. 눈을 겨보면 요즘도 이러한 오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두루미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들이다.

우리에게 꿈의 이상향을 일러주던 두루미가, 다시 우리의 정신 문화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 곁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 두루미가 무리지어 살 수 있고, 그들이 우아하게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청학동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 주 훈 (본원 연구위원)

* 이 연구는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이 수행한 연구 보고서(CR 95-1)를 요약한 것임.

고등학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4년 처음 시작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지도 20년이 흘렀다.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교육 행정가, 사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면담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준화 여부가 학생들의 학력 변화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협의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고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 정책으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열 입시 경쟁에 따른 과열 과외 및 고입 재수생 문제를 크게 완화시켰으며, 고등학교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기회 균등과 지역간, 학교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어려워져 고등학교 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사학의 건학 이념 구현이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학생 학력

의 하향 평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으나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즉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력 변화를 비교해 보았으나 두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찬성 64.0%, 반대 36.0%),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학교 유형별로 일부 해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수가(59.1%) 찬성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해 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사회 계층별로는 중하층에서, 성적별로는 중하층에

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평준화 유지를 희망하는 시도가 많았으나 평준화 해제를 원하는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의 발전 방향

고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 제도를 분석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발전 전망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세계적 조류로 볼 때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부분 의무교육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성적이나 학비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등 또는 기회 균등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학교 형태도 종합고등학교의 성격을 띠어 한 학교에서 인문 교육과 직업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지방 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교육에 대한 권한의 지방 위임, 자율화, 다양화가 더욱 촉진될 뿐 아니라 학교 단위의 책임 경영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교 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겠으나 앞으로 고교 교육의 과제는 이들을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고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의 평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교육의 수월성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킨다.

둘째,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

고, 입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한다.

셋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고교 학교 유형, 계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고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한다.

넷째, 고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학과 사학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학과 사학에 대한 학교 운영 방식과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을 달리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으로 현행 고교 진학제도의 개선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으로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다양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교육 여건의 평준화 및 지역간 균형 발전, 사학 운영의 활성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고교 진학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안(제1안), 희망하는 사립 고교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안(제2안), 현행 평준화 정책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안(제3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용여부와 시행 방법, 학군 조정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일부 시도에서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이러한 영향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평준화 정책이 기본 골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희망 사립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안은 희망하는 사학 중 설립자의 육성 의지,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원 확보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재정 투자 정도 등의 기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학생 선발권을 가진 사학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등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연차적으로 학교에 대한 보조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다.

학생은 리더십, 사회 봉사, 특별 활동 등이 포함된 중학교 전학년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고교 입시로 인한 과열 과외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과 관련된 치맛바람이나 과외,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안은 학군 내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3순위까지 지원하게 한 후, 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학교를 추첨·배정한다. 그리고 3순위까지 지망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나머지 학교에 추첨·배정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부여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우 학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진학 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확대·설치 및 운영의 내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어느정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 구체적인 시행은 지방교육자치당국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 실업 교육 체제의 강화를 제안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수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으로는 교과별 능력별 반편성과 개별화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점제(단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 여건의 평준화 및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투자의 활성화, 학부모들의 기부금 허용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학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립학교를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독립형 학교, 정부 보조를 받는 정부 보조 학교로 이원화하여 사립학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준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독립형 학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 책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 대신 국고 보조는 연차적으로 줄여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립 고등학교는 공립과 마

찬가지로 학교 운영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언

지금까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평가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교 진학제도의 개선과 관련 보완 대책 등을 검토해 보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었고, 당시의 심각한 문제였던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과열 과외와 재수생 누증 등을 해소·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고교 교육 기회를 균형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는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능률적인 수업이 곤란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이 무시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며 아울러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평준화 정책에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이러한 보완 노력은 결코 고교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평준화 정책이 입안 당시 전제했던 고교에서의 교원, 시설, 재정을 상향적으로 평준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재인식되어 정책 차원으로 내면화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김 흥 주 (본원 부연구위원)

※ 이 연구는 강우섭, 유현숙, 김흥주, 양승실이 수행한 연구보고서(RR 95-1)를 요약한 것임.

I. 서론

그 동안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의 필요가 절실해 왔다. 그리하여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즉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

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천이 학교경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돕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문제를 정리하고, 주요국의 관련 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학교운영과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물의 검토 결과를 보면 학교 경영 과

정에 교사나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의 목표달성 및 의사결정의 민주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만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참여의 증대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과정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데는 참여의 범위, 참여의 정도, 참여의 내용 등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적절하고 타당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구성원들의 사기와 효능성도 제고시키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

한편 우리의 현행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지시·전달 및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에 익숙한 학교 운영, 2) 자율권 및 재

량권이 부족한 획일적 학교 운영, 3)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에 미숙한 학교 운영, 4)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학교운영,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교류가 미흡한 학교운영, 그리고, 6) 경영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학교운영 등이 지적되었다.

Ⅲ. 주요국의 학교운영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학교운영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학교마다 사친회(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 학부모 자문협의회(PAC: Parents Advisory Council), 후원회(BC: Booster Club) 등을 두고 있으며, 영국 역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GB: Gover Body)를 두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학교 협의회(schulkonferenz)가 있으며, 일본도 PTA를 두어 학교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국의 학교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본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인사가 상호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결정을 하고 있다.

둘째,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을 위한 물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

셋째, 학부모 조직,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비단 재정적인 지원의 기능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공동체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서로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교육의 일차적인 소바자인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섯째,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제도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교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Ⅲ.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1)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의 공동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 2)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를 정착시키는 방향, 3)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1. 구성 방안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제안하였다. 제1안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 공동체로서 학교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는 자치기구로, 제2안은 초·중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 자치기구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제1, 2안 모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교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역시 2가지로 제안하였다. 제 1안에 의한 권한은, 우선 의결 사항으로서 「학교장 추천위원회」, 「교사추천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관리,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여부·내용·비용의 결정, 「심」사항으로서 학교 예·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청원 사항 등을 제안하였고,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제2안에 의한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관할청에 대하여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자체활동으로서 동 위원회는 기부금 모금 관리, 기금사용 결정 등을 규정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학교장은 방과후 및 방학중 유사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 프로그램 내용 및 비용, 강사초빙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협의의 결과가 학교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시에는 학교장의 재의 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3) 적용범위와 설치시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국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되, 단,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부설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상기한 학교외에 이에 준하는 국·공립의 기술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해당 단위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그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시 초기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먼저 선실험기간을 가진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후확대 실시하는 방향을 견지한다. '95년 2학기 동안 실험 운영을 하고, '96학년도부터 확대 실시한다.

4) 위원의 정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로서 교육행정기관의 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정수는 7~15명의 범위로 하되 학교규모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수에 있어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위원의 구성은 학부모 40~50%, 교사 30~40%,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10~30%의 범위내에서 학교규모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5) 위원의 선출과 위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자(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는 제외하도록 한다. 위원 중 학부모와 교사위원 즉, 선출위원의 경우는 매년 소속기관의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까지(3년 동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는 제외하도록 한다. 위원 중 학부모와 교사위원 즉, 선출위원의 경우는 매년 소속기관의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임

기를 모두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3년동안)연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1) 회의소집 및 회기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일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규칙에 규정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매학기당 15일 이상으로 하되,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운영위원 선출시기

학년 초 학기가 시작된 후 20일 이내에 운영위원 선출을 완료하도록 한다.

3) 의결정족수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을 의결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재의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신중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족수의 2/3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다.

4) 안건의 발의 및 처리

협의할 안건은 최소한 개최일 주일 이전에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예산안과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요하는 안건은 학부모대표와 학생대표가 간사운영위원에게 접수한다. 간사운영위원은 이를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는 학부모 또는 학생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5) 회의 운영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소위원회, 시설관리 소위원회, 교육과정 소위원회, 사회교육 소위원회, 환경교육 소위원회 등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참고안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운영위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 운영위원 1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는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능률적인 수업이 곤란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이 무시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며 아울러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낳게 하였다.

을 선임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활동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V.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대효과 및 제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학교운영과정에 교육관련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구체적인 운영안이 시행될 때 기대되어지는 효과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들의 해당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시켜 교육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운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교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실천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경영상에서 학교의 주요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학

교운영이 잘못되면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어 부족한 학교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일층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될 때 예상되는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학교운영상에 갈등사태를 유발하여 학교운영의 난맥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또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나 비교적 시민계층이 많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은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소극적일 수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예상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고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보완 조치 및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어느정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세부 구체적인 시행은 지방교육자치당국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타조직을 운영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보다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교육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많은 소관업무들 단위학교의 업무로 이관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단위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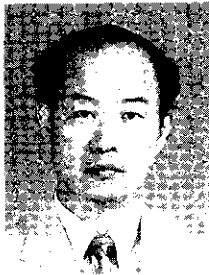
넷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학교 운영상황 등에서 부터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위원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과학과 종교 친구인가 적인가



최 인 화



- 경북대학교 사대 일반사회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대전과학고교 교사
- 「한국의 법교육 현황과 전개방향」의

I. 문제 제기

서양의 과학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의 섭리를 앞세우는 종교의 이론에 대한 인간의 이성애 입각한 과학적 발견이나 탐구능력과의 투쟁의 역사라 보여진다. 일찍이 갈릴레이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주장했으나, 이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소신을 굽힘으로써 살아날 수가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 주장을 되풀이 하다가 심지어 마귀로 몰려 화형을 당하기까지 한 일도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창조론이나 혹은 진화론이나의 논쟁과 같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처럼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과 논리체계를 주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으로 맞서기도 하고 혹은 친구관계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종교에 대해 과학이 호의적일 때는 과학자가 연구의 한계를 느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최후의 피난장소일 수도 있고 직관력을 호소하는 미더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첨단 과학자로서 탁월한 과학적 업적을 남기고 있는 과학자임에도 오히려 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독실한 종교적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실제로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주로 하는 과학의 영역에도 아직 명쾌히 과학적 설명이 가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사의한 것, 혹은 신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분명한 것은 과학적 발견이나 업적은 종교처럼 진리의 발견에 이르는 한 양식이라는 점,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인간 생활에 유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며, 과학의 탐구과정에서 인간적인 면과 사회발전이란 차원을 항시 고려

해 나갈 때 그것은 '인간적인 과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쓰여진 시론적 성격의 글로서 과학과 종교의 특질 및 실제 학교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지도 방법 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II. 과학과 종교의 특성 및 쟁점

1. 특성

과학과 종교는 그 관계 설정을 여하히 해야 옳은가? 과학과 종교는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 학교 현장에서 과학과 사회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한번쯤은 학생들에게 하여금 과학과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련 쟁점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적 방안에 대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본다.

우선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의 근본적 특성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음악이 어떤 음향 기기를 통해 흘러 나온다고 할 때 음악에 대하여 전기공학자나 종교 음악비평가는 그 음악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있다.

즉 전기 공학자는 음악의 질에 대해 과학적 용어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다만 음질을 개선하기 위한 음향 기기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에 반해 종교음악 비평가는 음향 기기의 기계적 작동이나 기능은 잘 모른 채로 음악의 상징성이나 내용 혹은 멜로디의 변화 양상을 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평가를 내리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자와 종교가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나 해석의 양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객관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교는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어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 및 구원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으나 그 특성상 힘과 함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과학자와 인문사회 과학자 혹은 종교가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사물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의 틀과 탐구방법 및 증명 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지식의 형태가 마련되고 지식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방식 하나만을 고집하면 안되며 어느 한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해 오는 곳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고의 체계와 지식 및 인식 방법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오래된 유명한 그림에 대해 평가와 관심의 내용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학자는 그림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 있고 과학자는 그림의 재료의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나 사업가는 그림의 값어치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학자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보이며 토론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진리는 많은 의미를 지니는 수가 있으며 그것을 탐구하고 접근해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과학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에 주로 의존하지만, 문학이나 그림 또는 시같은 것은 다른 형태로 진리를 탐구해 가고 우리에게 여러 차원의 세계를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문학적 표현으로 '은화같은 달(Silver moon)'이라는 표현은 과학의 눈으로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적 체험에서 얻어진 감동이나 지식은 과학적으로 중

시하는 객관적 사실보다 매우 의미있고 실용적인 것도 있다.

예컨대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치료나 의학지식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아이를 포근하고도 사랑스럽게 껴안아 주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려는 지식의 형태를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성경책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며 과학적인 저서가 아니다. 성경책이 만일 과학적인 이론과 발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다면 그것은 이미 오늘의 우리에게 매우 과학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인정되어 수많은 세월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독서로 위치해 있지 않을 것이다.

성경책은 많은 용어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 진리를 경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오늘날에도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실 성경 속의 창세기 편을 보면 종교적인 시각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한 활자화된 내용만을 주목하면 이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허황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과 종교의 특성이나 역할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로 다른 해석에서 나올 수 있다. 천둥소리를 듣거나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이 곧 신의 노여움의 표현이며 번갯불은 천벌을 내리는 신의 손(The hand of God)으로 이해하여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또 과학적 소양이 있는 어떤 사람은 그것은 단지 일종의 전기방전(Electrical discharge)현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엄청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인간의 실생활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현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석과 그 해결방안의 도출과정이 서로 다르

게 이루어지는 것을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은 물질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변해 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은 최초로 어떻게 출현했으며 인간은 이러한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걸까? 인간 생활의 목적과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다분히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명제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쟁점

과학과 종교는 상호간에 부정적이며 대립되는 것으로 보인 것이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과학적 연구는 객관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혹은 사회에서 널리 규정된 신념체계를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이른바 가치의 중립이라는 과학적 절차를 중시하여 이를 통한 진리의 발견과 자연현상의 분석을 시도해 온 것이다.

이에 비하여 종교에서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가치있는 방향의 탐구라든가 혹은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일정한 규범이나 통제를 가해 왔다. 이는 진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방법면에서의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과학과는 또 다른 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역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종교는 또한 일정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이성 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감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비평을 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과 종교간의 관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타방에 종속하기도 하였고 혹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하여 왔다. 예컨대 교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대체로 종교적인 시각에서 그 논리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컨대 사람들은 신은 합리적인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은 실제 세계에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서, 과학은 이러한 신의 섭리를 체계적이고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과학은 그 자신의 학문적 체계와 논리를 신의 말씀과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하여 왔던 것이다.

유명한 과학 사학자인 Colin Russell 교수도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남겼거나 물리학의 기초를 이룬 과학자들, 예컨대 Galileo, Newton, Faraday, Maxwell 같은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동기를 부여한 것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Colin Russell 교수가 주장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ASE, SATIS, satis 16-19, Unit 77, 1992, pp. 5-6).

1. 근대과학의 초기에는 기독교적 관점(Christian concepts)이 세상에 대한 인간들의 사고 형성에 결정적인 중요역할을 하였다.
2. 과학과 종교상의 특유한 갈등을 초래하였던 문제들은 처음엔 그 당해 과학자를 고립시켰고 교회의 고발과 함께 처벌을 받는 수도 있었다(예. 갈릴레이와 다윈의 경우).

과학과 종교적 관점에서 일어났던 쟁점은 무수히 많다. 예컨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인 천동설과 새롭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지동설,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설과 다윈의 진화론과의 대립 등이 가장 고전적인 사례이다. 물론 오늘날 천동설

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창조론이나 혹은 진화론이나의 논쟁은 아직도 치열하며 교육과정상에서 여하히 다를 것이냐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전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Epperson 사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Epperson v. Arkansas, 393 U. S. 97 (1968) 참조). 이 사건을 보면 일찍이 Arkansas 주에서는 주법으로 1928년에 공립학교에서나 대학에서 다윈의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Arkansas 주의 Little Rock 시의 한 고교 생물학 교사로 재직중이던 Epperson(女)이 착오로 진화론을 가르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즉 이 교사는 그가 지닌 생물학교수 지침서(이 책은 생물학교사협회에서 제작 배포되었던 학습 참고 자료용 문헌이었다.)에 실려 있는 진화론을 가르침에 따라 주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화론 학습 교사는 파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다. Epperson 교사는 동 규정이 미연방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미연방 대법원에 구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Epperson 교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그 후 Parducci 사건(Parducci v. Rutland, 316 F. Supp352 (1970) 참조)에서 보인 판결의 태도에서 처럼 학교 당국의 교과내용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문제 발생시 학교 당국의 교육의 본질에 심각한 이익과 교사의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함으로써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과학계와 종교계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있다.

과학과 종교가 갈등상태를 보이고 있는 쟁점은 낙태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1986년 5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신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형법상의 낙태죄는 사문화된 상태에 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다시 말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인구 억제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 외에도 임신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혹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와 같이 과학적인 진단의 결과 그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종교 및 도덕적 차원에서는 태아의 존엄한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청과 종교교리의 근거 하에서 과학의 입장과 대치상태를 벌이며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전통적으로는 심장사의 입장에서 사망의 시기는 심장의 정지를 그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 의료과학의 발달에 의해 장기이식 수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시술되고 또 요청되면서 의료과학적 필요성에 의해 죽음의 시기를 뇌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에는 또한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복제 인간의 출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 동물의 경우에는 털의 개수까지 비슷한 동물을 만들어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복제 인간이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 장기 등으로 몸의 일부를 개조한 인간, 즉 사이보그(Cyborg)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상만해도 끔찍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과학의 발달이 과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가져온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회의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상영된 스피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에서 보듯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미 6500만년 전에 지구상에서 존재하였다가 사라진 공룡을 염색체 추출과 이의 배양을 통해 재생해 내기까지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될까?

이는 생명의 창조와 복원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과학과 종교의 갈등사태를 야기시킬 것은 물론이고 과학의 발달이란 것의 의미에 대한 과학철학적 탐구와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반성하는 과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과학의 발달은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경계한 바 있다.

정서지능(EQ)이란 무엇인가

인간이해의 새로운 도전

정 종 진



- 공주사대 교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동기와 학습」 외

II

“IQ보다 EQ가 높아야 성공한다”, “EQ의 의미 :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 “지금엔 정서지능 시대”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최근에 들어와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정서지능과 이의 측정 개념인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 : EQ)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선풍적으로 유행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1995년 <뉴욕 타임즈>지의 뇌과학과 행동과학 분야의 전문 칼럼니스트인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 박사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책을 펴내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9일자 <타임>지에 “당신의 EQ는 어느 정도인가”란 기사가 표지기사로 실렸다는 점이다. 골먼은 그의 저서에서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할 때 지능검사나 학력평가에 의해 측정된 지적능력보다는 ‘인성’이라는 지칭된 ‘마음의 특성’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조절, 동기부여, 타인의 기분 살피기, 시의적절하고 유쾌한 말투와 제스처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EQ적 능력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속에서 동지를 만들고 힘을 얻어 성공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끔 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까지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개념을 IQ로서 설명해 왔지만,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IQ가 높지만 실생활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람과 이와는 달리 IQ가 낮으면서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 이유가 ‘정서지능’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EQ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취직은 IQ에 의해, 승진은 EQ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IQ gets you hired, but EQ gets you promoted)라고 말한다. 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20% 정도만이 지적능력에 의해 좌우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EQ와 같은 다른 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또래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른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적응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EQ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Q가 생활 전반의 적응이나 성취면에서 보다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실험의 예가 있다. 미셸(W.Mischel)이란 심리학자는 네 살짜리 아이들을 빈 방으로 따로 불러 맛있는 과자를 한 개씩 나눠주면서 “지금 내가 볼 일이 있어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과자를 먹어도 되지만, 만일 먹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과자를 두 개 더 줄게요.”라고 말하고는 외출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그 심리학자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과자를 먹어치운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참다가 마침내는 유혹에 지고 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눈을 감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기도 하며 놀이를 하거나 그만 잠을 자는 등 유혹을 뿌리치며 심리학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다. 이 실험이 있는 후 10년이 조금 넘어 그 심리학자는 그들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발견했다. 즉, 끝까지 잘 참아서 과자를 두 개 더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인내가 있고, 창의적·생산적이고, 모험심이 있고, 믿음

직하고 신뢰로우며,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유혹을 못이겨 이에 굴복한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도전적인 일에 쉽게 좌절하고,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성취의욕이 낮고, 성격상의 부적응을 나타내며,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적성검사(SAT)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 210점이 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AT 시험의 두 부문에서 가능한 점수편차는 200~800). 이 같은 큰 차이에 대해 그 심리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차이는 ‘머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린 그 마음의 힘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머리의 힘’은 IQ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고,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 ‘마음의 힘’을 표현하는 말이 EQ라고 볼 때, 결국 어린 시절에 충동의 힘에 끌리지 않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곧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쉽게 충동에 넘어가는 빈약한 정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앞서간다는 것이다.

3

정서지능은 대체로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모든 일을 대할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게 만드는 것도 정서지능의 힘이다. 그러면 정서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 플먼은 정서지능을 자기 인식능력과 충동 통제력, 지속성, 열중성, 자기 동기화, 사회적 기술, 공감능력과 같은 요인으로 간주하고, 실제

생활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고, 계산 잘하는 지적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줄 알고, 자기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행동상의 절제력이 있고, 이타주의적이며, 동정심과 관용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간의 교감하는 능력과 삶을 보다 풍요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조절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990년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예일대학의 살로베이(P. Salovey) 교수와 뉴햄프셔 대학의 메이어(J. Mayer) 교수 역시 골덴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서지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흔히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emotional self-awareness)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자신의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 감정과 행동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정서지능의 근본 바탕이 된다. 순간 순간 자신의 정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통찰과 자기 이해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이 기분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피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느껴서는 안돼”, “기운을 내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자기의 감정을 먼저 살핀 후에 나타내는 판단적인 반응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 후 이 감정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서지능인 것이다. 만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깨닫는 과정없이 분출하는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바로 충동적 행동으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노여움이란 것을 알게 되면 화난 그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면서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managing and controlling one's emotions)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공격적인 행동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능력, 자신과 가족 및 학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능력,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다루어가는 능력, 고독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덜 느끼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희노애락의 감정의 바다속대 살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교훈이다. 모든 감정은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해 주는 것이다. 정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멍청하고, 무반응적이거나, 지나치게 병담해져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한편 통제 불능일 정도로 정서반응이 심할 경우에는 광적으로 고양된 흥분반응을 보이거나, 불안감에 빠지게 되거나, 분노감에 휩싸일 수 있으며,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것이 정서적 안녕을 취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요컨대, 적절하게 정서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곧 지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 나가는 능력으로서 만연하는 불안, 우울, 흥분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대처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일 이러한 불쾌한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계속되는 불쾌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지만, 적절히 대처할 수만 있다면 좌절이나 역경에서 쉽

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자신의 감정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 (harnessing one's emotions productively)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보다 책임을 지는 능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 보다 인내심을 갖고 충동적이지 아닌 사려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희망과 낙천적 태도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능력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에 직면해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훈련과 실천을 통해 어떤 어려운 일이나 따분한 일이라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굳은 신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정서는 동기적 측면에서 보면 열정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하는데, 감정이 적당히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온갖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낙천성이 정서기능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것 (empathy: reading other's emotions)으로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등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상담에서는 공감 혹은 감정이입이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남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를 의학에서는 감정표현 불능증

환자 (Alexithymics)라 일컫고 있는데, 이런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를테면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남의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른바 감정적 방어리인 셈이다. 정서적 표현이나 느낌과 같은 것은 말과 행동에 의해 미묘하게 짜여진 옷감과 같은 것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의 변화, 신체 표정이나 자세의 변화 등의 미묘한 변화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거나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을 정서기능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공감력의 발달은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타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리학적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남을 괴롭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극히 잔인한 사람들은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의 하나는 모두 공감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것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 (handing relationships)으로서, 대인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의견이 상충할 때 갈등을 협상하는 능력,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보다 사교적으로 되는 능력, 인기를 얻는 능력, 보다 관용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능력, 집단에 보다 동조하는 능력,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적 기술인 대인관계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하며 인간관계에서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지적으로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오만방자하거나, 남의 비위에 거슬리

는 것을 한다거나, 또는 쌀쌀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드너(H. Gardner)에 의하면, 대인관계 지능을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선도하고 협동성을 장려할 줄 아는 이른바 집단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지도력),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과 분쟁이 악화되어가는 것을 해결해 내는 협상능력, 개인의 감정과 관심거리를 알아차리고 이를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 결합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갖는 미묘한 감정과 동기 및 관심 따위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감식력과 통찰력인 사회적 분석 능력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인기있고, 매력적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한 요인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매우 유용한 삶의 기술인 것이다.

위의 다섯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정서지능 혹은 EQ란 자신의 내부에 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어느 수준으로 왜 일어났는가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달래고 조절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을 적절히 분발시키는 능력,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맺는 능력 등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내포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4]

EQ의 교육학적 의의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IQ에서 EQ로의 전환' 이니 'IQ와 EQ의 상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우리 교육은 머리도 좋고 인

간성도 풍부한 재덕겸비(才德兼備)한 인물을 육성하기보다는 머리만 좋고 인간성이 풍부하지 못한 재승덕박(才勝德薄)한 인물을 길러내는 데에 마치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말 잘하고, 계산 빠르고, 자기중심적이며, 냉정한 판단과 사고를 갖는 사람을 보다 우수한 사람으로 여겨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척도로 삼고 있는 이러한 IQ기향적 가치관 때문에 고도의 이기적 가치지향, 즉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의 양산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혼율의 증가, 잔인한 범죄율의 증가, 정신장애자,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심신성 환자의 증가 등 여러 형태의 감정 상실에 의한 비극적 증후의 홍수가 우리 사회를 덮쳐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감정없이 사고만 하는 기계적 인간 대신 따스한 감정과 사랑을 느끼고 나눌 줄 알며, 철저한 자기 중심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컴퓨터적 인간 대신 충동과 욕망을 조절하고 뚜렷한 자기 세계관 위에 꿋꿋이 견뎌내는 참다운 '나'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하고 비정한 경쟁 사회, 인간끼리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뉴미디어 사회, 그리고 갈수록 원자화되어 가는 핵가족 내부를 들여다 볼 때 EQ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쓰라림은 공존에의 그리움, 곧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애달픔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IQ가 아니라 EQ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개인의 행복감'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행복감이란 전전한 인격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때 얻어지는 지고한 정서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EQ의 교육학적 의미를 깊게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그 인식론적 배경

양 미 경



- 서울대학교 사대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부연구위원
- 「질문의 생성을 촉진하는 교육적 조건 연구」 외

I. 서론

교육은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지식의 문제를 떠나서 논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지식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역할과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 왔다.

종래의 학교 교육을 지배해 온 대표적인 교육관으로서 공학적 개념, 성년식 개념, 사회화 개념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이홍우, 1991) 이들은 상당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일맥상통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첫째, 교육의 목표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둘째, 교육의 내용은 해석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고 전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 셋째, 학습자를 다분히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 넷째, 교육적 진보의 과정을 점진적이고 누적적이며, 전선적인 양상으로 파악하는 점,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교육을 결과 위주로 생각한다는 점 등이다.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관점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러한 교육관들에서는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논급은 거의 없다. 이러한 입장의 일치만은 바로 그들의 인식론적인 전제가 모두 같은 뿌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존의 교육관은 모두, 지식은 인식 주체의 앎의 과정이나 의미 해석과 관계없이 외부에 객체로서 존재하며, 지식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기준이나 준거가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최정상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축적된 가치로운 일단의 지식체를, 비교적 기초적이고 쉽

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넣어 주는 과정으로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적인 전제와 그것에 기초한 많은 방법적 원리들은 20세기 초반 이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인식 과정에서의 인식 주체자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면서 대두된 대안적인 입장(Hanson, 1958; Polanyi, 1958; Heidegger, 1962; Kuhn, 1970; Feysabend, 1975; Gadamer, 1975; Rorty, 1982; Schutz, 1982; Bernstein, 1983; Maturana & Varela, 1987; Hekman, 1983 등)은, 진리 혹은 실재 등은 그것을 탐구하는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의 틀, 예컨대 개념 체계, 이론적 준거, 삶의 양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포착되는 것으로서, 인식 주체자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떠난 절대적인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식의 성장과정은 입증된 지식의 축적 혹은 참인 것의 증가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주체적 재해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바(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최근의 인식론적인 흐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강조는 시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발전된 인식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시의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적 대응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종래의 교육 관행을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

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저기에', '객관적으로' 가치로운 지식의 무더기가 있어 그것을 차곡차곡 머리 속에 들여와 쌓는 식의 종전의 교육내용관, 방법관이 더 이상 통용되기는 어렵다.

'95년 발표된 '5. 31 교육 개혁안'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아이디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도래할 시대에서의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계획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각자의 주체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해 영위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예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강조는 그 개념에 대한 깊이 있고 포괄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기보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첫째,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관이나 지식관이 객관주의의 인식론에 기초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과,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주로 교육심리학의 분야에서 실증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치중하여 이루어져옴으로 인해, 개념의 본질이나 인식론적 맥락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주안하여 왔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인식론의 최근 동향과 시대적인 요구가 함께 맞물려 강하게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그 의미와 인식론적인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며, 한낱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지면 관계상 충분한 논의를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

II.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인식론적 배경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정확주의(foundationalism) 혹은 객관주의(objectivism)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두되어 온 최근의 대안적인 인식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로 짚어 보고, 그러한 관점과 특히 유관한 인식론적인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안목이나 입장이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학습에서의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의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이는 인식의 내용은 외부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표상(represent)’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자의 안목에 의해 ‘구성(construct)’된 것이라고 보는 인식론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학,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구성주의, 진실용주의 등 최근의 인식론에서는 모두 인식 주체자의 역할을 인식의 핵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구에게나 가치로운 일단의 지식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일정한 범위의 내용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고 내면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결여된 부적절한 노력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당사자적인 참여와 체험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학습 경험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으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습은 개개인의 전인격적인 몰두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승이나 서적 등의 도움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도움도 최종적인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며, 항상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

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남겨진다고 볼 수 있다(Polanyi, 1958; 장상호, 1991; 양미경, 1992).

셋째, 학습자 내부에서 비롯되고 갱신되어 가는 목표 의식을 강조한다.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부과되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아왔던 관점과는 달리,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 과정을 통해 깨달아지거나 혹은 발견, 상정되며, 일단 달성되면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끊임없이 바꾸어 설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가르침이란 학습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미 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지식의 진보 과정에 대한 상대주의 인식론의 설명 방식(Kuhn, 1970; Feyerabend, 1975; Chalmers, 1982 등)과 그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넷째,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통제력을 신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관에서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의지와 욕구를 중시한다. 평형이나 안정 등에 대한 욕구 이상으로 불평형이나 불안정,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객관주의 인식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안된 상대주의 인식론에 대해 자칫 방법론의 공백이 가지고 올 자의성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으나, 최근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인식 주체자 개인은 물론 학문 공동체 내의 대화 및 합의 과정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는 바(Bernstein, 1983; Doll, 1993; 장상호, 1991; 조화태, 1993),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학습자의 주체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내려질 수 있으나,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인 성장감과 희열은 교육의 본연에 가장 가까운 내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개인이 느끼는 주체적인 성장감을 토대로 교육적인 진보를 설명하는 것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인식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객관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학습자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해당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전통과 그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 원리와 평가 기준 등을 체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안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객관 상호주의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인식론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끝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임을 지적할 수 있다. 특정 지식이나 기능 등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느냐와 같은 결과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경우, 타인의 주도나 선도, 교화 등에 의한 경우보다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의 교육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이 지닌 잠재적인 위대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적 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위치에 올랐는가보다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교육적인 체험을 했는가 더욱 주목되는 세계라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여섯 가지의 측면에서 간략히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관점들은 병렬적으로 진술되기는 하였으나, 서로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의 과정을 중시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외부에서 일괄적이고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목표에 비중을 둘 수가 없으며, 과정은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III.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그것이 지닌 인식론적인 배경에 대한 앞의 간략한 논의는 주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나, 그것의 의미나 본질에 대한 교육적인 분석의 노력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관이나 지식관이 객관주의의 패러다임에 기초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자율학습능력' 혹은 '자기 조정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등의 유관 개념에 대한 연구도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오기는 하였으나, 주로 학업 성취를 제고하는 전략 혹은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상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객관주의 혹은 실증주의의 내규와 범주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수행됨으로 인해 이들 개념이 지닌 본질과 의의가 충분히 주목받거나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 및 그와 유사한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함으로써 그들 연구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고자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율학습' 혹은 '자기조정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상위인지(metacognition)'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설명하고 예언하는 요인을 밝히려는 목적 하에 주로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연구 방법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개념의 본질이나 인식론적 맥락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주안하여 왔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도 자율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것의 주된 구성 요인들이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개념 분석의 노력은 그것을 측정하고 신장시키려는, 그들이 생각할 때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율학습 능력이나 상위인지 등은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습득하면 좋을 일종의 '전략'이나 '기능'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칭해지는 Zimmerman은 자율학습 능력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인 전략을 통하여 자신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능력'(Zimmerman & Schunk, 1989)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그는 목표 설정과 계획, 정보 탐색, 기록과 모니터링, 반복화와 기억, 필기한 내용의 재검토, 교재의 재검토, 교사의 도움 모색, 시험 내용 및 결과의 재검토 등 14개의 자율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Linder와 Harris(1992)는 자율학습 능력을 다차원의 복잡한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첫째, 학습과정을 모니터, 평가, 지속,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능력과 둘째,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상황적 요인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개념 정의의 노력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기능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 주안하

고 있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자율학습 능력이나 상위인지 능력 등이 특정한 학습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적'인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실증적인 연구 방식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나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그 인식론적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온 선행 연구들의 특성을 개관하여 보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종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실증적인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옴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의 본질이 그동안 상당 부분 축소, 혹은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은 그 본질상 자기주도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이라는 다분히 불필요한 수식어를 잠정적이거나 붙이는 것은, 학습을 보는 안목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 계획, 시행, 평가되는 것으로 인식하던 종전의 관점에 대해 대안적인 입장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다.

요컨대, '자기주도적 학습'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서, 혹은 여러 학습의 종류 중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의 본질적인 측면'을 애써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될 때, 이와 관련된 향후의 이론적, 실제적인 노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과정 2000 총괄 기획팀의 사람들

다가오는 새시대, 2000년의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론헌 원장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국교육의 참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체제 구조 개선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특수 목적 고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OECD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정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OECD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의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와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1996년 10월 14~15일에 걸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에서는 OECD 검토단이, 그동안 한국교육개혁사업과 교육정책을 검토하여 작성한 OECD 검토보고서(시안)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OECD 검토단은 이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검토 보고서를 금년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장관, 이영탁 교육부 차관,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Alan Ruby 교육위원회 의장, Thomas Alexander 교육·고용·노동·사회문제국장, 평가단인 William Renwick, David Stern, Torvben K. Rasmrssen, 그리고,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0월 15일의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한국교육개혁의 주요과제로 나누어 OECD 검토자들이 발표하고, 국내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신한국교육의 역동성'(발표: William Renwick), '평생교육'(발표: David Stern), '교육의 질 추구'(발표: Torben K. Rasmussen), '신교육체제에서의 지식과 정보'(발표: William Renwick)였다.

학교발전연구본부

* 9월 23일(월) 13시 30분부터 6시까지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4층 대강당에서 「유치원 공교육확대 실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연구팀장인 나정 연구위원이 '유치원 공교육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고정곤(전북 군산시교육청 학무과장), 김선희(학부모), 김왕복(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장), 문용린(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전선희(국·공립 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최희선(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경자(유치원 총연합회 회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 공청회는 약 400여명의 유아교육 관련인사가 참석하여,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 10월 11일(금)은 교육혁신 우수사례 세미나(II)를 개최하였다. 전국 교육청 초·중등 교육 담당 장학관(사) 30명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70여명이 참가하였다. 세미나에는 서울 상계 고등학교의 공통 과학의 통합 지도, 강원 동해 중앙 초등학교의 어린이 독립국, 경주 신라 중학교의 조기 진급, 조기 졸업제도 운영, 광주 광역시 교육청의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교단선진화 사업, 경남 진해 웅천 초등학교의 아동학교 운영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각 학교의 비디오 자료 방영 및 토론이 있었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OECD 한국교육정책 검토 연구팀'에서는 10월 14~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교육부



장·차관, 각실·국장, OECD 검토팀, OECD 교육노동국 사무국장, OECD 교육과장, OECD 회원국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통일교육연구팀'에서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통일대비 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으로서, 본원 한만길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박용현(서울대 교수, 신상조(신남중 교장), 정규원(교육개혁위원회 장학사),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종도(서울고



교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통일교육전문가, 통일교육담당 전문직 및 교원들이 참가하여 학생의 통일외식 실태, 그리고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하여 토의할 것이다.

기획조정실

* 홍보편집팀에서는 9월 20일 ~21일간 '교육개발' 학교 탐방 취재를 위하여 동해시 동해중앙 초등학교를 다녀왔다.



* 본원은 10월 1일 원내 제1회의실에서 정기 국정감사를 받았다.



* 10월 4일 본원 제1회의실에는 '교육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 관한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기획조정실에서는 '1997년도 연구사업 계획서'를 10월 19일까지 공모하였다. 본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 대상으로 실시된 '1997년도 연구사업 계획서 공모' 결과는 1996년 11월 30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 회의가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본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 회의는 연 2회 열리며, 봄에는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가을에는 본원에서 개최된다. 15개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장과 관련 부장, 교육부 관계자 및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하는 시·도교육(과학)연구원장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1996년도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검토가 11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는 수정·보완을 거친 후 12월 말에 인쇄될 예정이다.

* KEDI 학술연구토론회가 9월과 10월에 각각 2회씩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7일에는 김홍원 박사가 '수학 영재 검사 도구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9월 21일에는 김왕근 박사가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과별 개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조석희 박사가 '미국의 영재교육 동향'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에는 김정호 박사가 '개인의 신념 체제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997년은 본원이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KEDI 동문회에서는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KEDI 야사집과 회원 수첩을 발간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야사집에 원고 게재를 희망하는 KEDI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정보자료실

* 한국전산원의 초고속 공공 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이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 개발 사업에 대한 9월 월례회의가 한국전산원, 한국교육개발원, (주)솔빛 미디어 등의 기관과 위탁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0일(화), (주)솔빛미디어 사옥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 개발 제1차 사업에 관한 개요와 그 제한점, 그리고 금번 제2차 사업에서 이루어질 진행내용과 그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 개발 제2차 사업에서 이루어질 주요 과제는 모두 다섯 가지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1차 사업때 개발된 MAL(Multimedia Assisted Learning)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 개선, 둘째, KEDI 홈페이지 개발, 셋째, MAL 자료 개선, 넷째, MAL 자료의 저작권 확보, 다섯째, MAL 자료의 학교현장 적용연구 등이다.

* 교육정보연구팀은 현재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96 WebNet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학술회의는 Web Society & ACCE(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in Education)의 주관하에 10월 15일~19일 동안 개최되며, 총 20개의 주제에 대해 250여개의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총 참가 인원은 6명인데, 본원에서 천세영 부연구위원(교육정보연구팀장), 백영실 연구원, 한국전산원에서 김은영 연구원, (주)솔빛에서 김상균 차장, 서울교대 DB자료개선팀장 홍명희 교수, 충북대 이옥화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통계 DB구축 방향에 관한 협의회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교육평가원, 통계청 등의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8일(수), 본원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통계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그리고 교육통계 DB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되었다. 회의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업무 발전 계획안에 대한 소개에 이어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KEIS/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개발 경험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교육통계 DB구축 전략에 대한 발표와 데모, 그리고 교육통계 DB구축 방향에 대한 협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정보자료운영팀과 전산운영팀에서는 9월 18일 본원 부원장을 비롯한 본원 직원의 참석하에 '주전산기 및 도서관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통식'을 가졌다. 본원의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인 KEDILAS(KEDI Library Automation System)가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실에서 소장 자료에 대한 서지 사항 검색, ERIC자료 검색, 도서 대출 상황 조회, 도서 예약 등이 가능하여 진일보된 교육 연구 환경을 접하게 되었다. 개통식은 구축 내용 소개와 데모 및 고사식 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시스템 사용 환경은 윈도우용과 도스용 두 종류가 있으며 윈도우용은 486 PC(16MB) 이상, 도스용은 286 PC이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법은 현재 도서관에서 시스템 이용안내 카달로그를 배포 중이며 지속적인 연구(주 1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96년 10월부터는 본원 전직원에 게 개인 코드가 내장된 바코드를

배분하여 도서 대출시 바코드 장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연구협력실

*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국제 워킹숍을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9월 12일 러시아의 고용훈련센터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 9월 12일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렌즐리 교수가 본원을 방문하여 '영재를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 10월 12일 본원 제 1회의실에서는 한국·뉴질랜드 교육협력사업 세미나가 원내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 체제·구조개선안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9월 11일에 개최하였다. 10월 2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 개선안 중, 계열간 유사학과의 전문 교과목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0월 16일과 19일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설치예정인 '선택과목'과 '실과(기술·가정)'의 각론 개발 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

회를 개최하였다.

*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올해 개발할 공고 「2·1체제」 전문 교과서 32책에 대한 개고본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공고 「2·1체제」전문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교과서 구성내용의 적절

성과 현장성, 그리고 원고본 검토 협의회시 합의한 협의 사항의 반영 결과에 대하여 집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한지적공사의 수탁과제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적대학 설립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지적 대학 설립·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내무부, 교육부, 지적공사, 각 공고와 전문대, 대학의 토목 측량·지적 측량 분야 관계인사 100여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지적 분야의 발전 방향과 지적 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지적 대학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다. 연수의 목적을 공고 「2·1체제」수행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장에게 강한 신념과 동기를 부여하고, 공고 「2·1체제」운용의 자율화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며, 기능 인력 양성 체제로서의 공고 「2·1체제」의 효율적 적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고 실시하였다. 연수단은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의 직업기술학교, 사내직업훈련원, 직업기술교육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직업기술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교환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재교육특임본부

* 수학 영재 판별 검사 개발팀에서는 9.6~9일에 초, 중·고등학생 수학 영재 판별을 위한 문항 개발 의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방승진(아주대), 최부림(고려대), 이재철(한양대 부속초등학교), 정정환(교육부) 등 36인이 참석하였다. 수학 영재 판별을 위한 검사는 1부 검사와 2부 검사로 구성된다. 1부 검사는 수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

며, 2부 검사는 수학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의뢰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수학 영재 평가 문항의 성격, 문항 개발시의 유의사항 학교 교육의 문제점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 영재 교육 교원 연수 자료 개발팀에서는 10월 14일(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영재 교육 운영의 실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화여대 김재은)', '영재 교육 운영의 실제:속진제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영재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한국교육개발원 김주훈)', '수학 영재의 판별 및 도구 개발(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은 전국에서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영재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 영재 교육 자료 개발팀에서는 10월 14일부터 영등포 중학교, 서울 여중, 대영중, 화계초등학교 등에서 개발된 중학생용 영재 교육 자료를 현장 실험하였다. '추적, 경부 고속 전철', '세계 시민으로서의 나', '자동 조절과



* 8월 28일부터 9월 6일 동안(9박 10일) 전국 공고교장회 23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

센터', '과학 만들기' 등의 자료가 적용되었다.

* 과학 영재 판별 검사 개발팀에서는 10월 15일 검사 문항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김정휘(청주교대), 김영수(서울대), 구학봉(교육부) 등 외부 전문가 7인과 원내 연구진이 참여하여 과학 영재 판별 문항의 성격과 타당도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수학 영재 판별 검사 개발팀과 과학 영재 판별 도구 개발팀에서는 예시로 개발된 수학, 과학 영재 판별 검사의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0월 21~30일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현장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는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영재교육본부의 박경숙 본부장과 김주훈, 김영숙 박사는 미국의 영재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영재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0월 28일 ~11월 8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미국영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하였고, 초·중·고등학교 영재 학교를 방문,



학생 선발 방법, 학교 운영, 수업 방법, 교수-학습 자료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방송통신교육센터

* 제16회 전국 방송 통신 고등학교 학예 경연대회가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 있는 화랑 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학예 경연대회는 방통고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특기를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참가 학생들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1981년 이래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학력, 운문, 산문, 서예의 4개 부문에서 150여명의 학생들이

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과 솜씨를 겨룬 결과, 최우수상 4명(부문별로 1명씩), 금상 4명(부문별로 1명씩), 은상 8명(부문별로 2명씩), 동상 12명(부문별로 3명씩), 장려상 20명(부문별로 5명씩), 특별상 1명, 기타 우수 정취록상 10명에게 교육부장관상과 한국교육개발원장상 및 경상북도 교육감상이 수여되었다.

각부문별 대상 수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 문	학 교 명	학 연	성 명
학 력	경기여고	3	신민경
산 문	경기여고	3	이귀심
산 문	춘천여고	2	목옥균
서 예	구미고	1	매접자

* 1997학년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용 도서 중 본원이 개발하고 있는 '수학 I', '영어 I', '물리

I', '생물 I'이 교과서 집필이 완료되어 교육부에 인정 도서로 출원 신청을 한 결과 4책 모두 인정 도서로 합격되었다.

* 당 본부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센터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컴퓨터 통신 학습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통된 에듀넷 망을 통해 방통고 학생들에게 방송 강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 기간은 금년 12월 15일까지이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방통고 운영과 학습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설-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 9월 11일(수) 10시에 교육부 주최,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와 한국통신 주관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에듀넷(EDUNET) 개통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장학사, 연구관, 언론인, 안병영 교육부 장관, 김중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윤형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계철 정보통신부 차관,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 교

육 및 정보통신 관계 인사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우리 나라 교육 정보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및 세계청소년 네트워크(GYN)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센터와 함께 제1회 교육용 홈페이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인터넷 스쿨 함께 꾸미기」로 명명된 이번 공모전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교육용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보의 바다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교육용 한글 정보를 늘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터넷의 월드와이드 웹(WWW) 문서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볼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순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참가 부문

개인은 학생-교사-일반인 3부문 중 하나에 응모할 수 있으며, 단체는 학교와 일반 2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학생 부문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이 해당되며, 교사 부문은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한다. 학생·교사 외의 개인은 일반인 부문에 응모하면 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작품은 학교 단체 부문에, 기타 공동 작품은 일반 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 응모 주제

응모 주제는 학교 교과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 중, 고등학



교 교과내용을 인터넷의 웹문서로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 한국의 지리, 특산물, 유적지, 한글 등을 국내와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 충·효·예 등 한국의 전통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모집한다.

가족을 소재로 해 한국의 미풍양속을 고취시키는 내용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이 각종 홈페이지 공모전을 통해 한글로 된 정보를 많이 늘려 왔지만 본격적인 정보는 부족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교육용 한글 정보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키드넷(KidNet) 홈페이지의 「인터넷 스쿨」과 「에듀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 접수

접수 방법은 플로피디스크나 CD롬에 담아 조선일보 키드넷 본부를 직접 방문해 소정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키드넷 본부에서 만든 소정 양식을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배부받아 함께 우송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96년 11월 30일, 결과 발표는 12월 초순, 수상작 처리는 에듀넷과 키드넷 서버에 게재할 계획이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 별관 7층 키드넷 본부, 전화 : (02) 724-6091-3, 팩스 (02) 724-6099,

전자편지 주소 kidnet@chosun.com

학생과 교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용 홈페이지, 그리고 교육에 뜻이 있는 기관과 단체가 함께 꾸미는 제1회 교육용 홈페이지 공모전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제5회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사업의 예선 출품작 수가 1,532편으로 마감되어 예선 대회를 마쳤다. 이에 따라 본선대회 출품 편수는 총 301편으로 확정되었으며, 본선 대회 출품작 접수는 '96년 10월 19일까지, 심사는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 동안에, 결과는 '96년 11월 30일까지 알려줄 예정이다. 시상작은 1등급 100편, 2등급 100편, 3등급 101편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 '96년 9년 11월 에듀넷이 개통된 이래 에듀넷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 5일 9시 현재, 등록자 수는 18,721명, 일일 총 접속 횟수는 1,515명, 일일 총 접속회수는 3,056회, 일일 총 사용 시간은 521시간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의 4대 핵심 서비스는 ① 연구보고서 논문, 교단 지원 시청각 자료, 주제별 학습 자료 등의 교단 지원 DB와 음악실, 문학에의 초대 등의 문화 정보,

각종 교수 학습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기관 소개, 민간 IP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② 온라인 학교, 폐쇄 사용자 모임,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 인터넷 서비스, 상담서비스, 토론 마당 등의 정보 교환 서비스, ③ 원격 학교 지원, 평생 교육, 원격 교육, Cyber서비스, 홈쇼핑 등의 초고속 정보 서비스 ④ 교육 통계 정보, 문서 유통, 정책 해설, 한국의 교육 지표, 교육 관련 법규 등의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96년 말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문자 정보를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와 화상 멀티미디어 정보를 Web 서비스 두 가지로 운영된다. 접속 번호는 01410, 747-0011, 주소는 128, 134, 77, 133, 도메인명은 edunet.nmc.nm.kr 이다.

에듀넷 활용 안내를 위해 10월 중순경까지 에듀넷 활용 안내서가 개발되어 전국의 모든 초·중등 및 대학, 교육청 및 교육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15개 시도교육청에 에듀넷 시범학교를 추천 의뢰하여 운영('96.9~12)하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도 선발되어 (3명)활동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각 팀에서는 12월 말까지 각종 교육 정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좀 더 알찬 에듀넷이 운영될 전망이다.

투 기 안 내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1) 칼럼 명 : 연구동향

칼럼 성격 :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2) 칼럼 명 : 멀지만 가야 할 길 (신설)

칼럼 성격 : 현장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밀하게 다루어 보아,
그 개선안을 찾는다.

◆ 기한 : 수시 접수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편집팀

(Tel : 3460-0233, 0234)

◆ 기타

1)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2)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 '96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실시

지난 10월 2일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강의실에서 '96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연수 대상자는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60여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들로서, 교육내용은 인성 교육, 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심성 수련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 부산지방검찰청 소년부 백성근 검사의 "사회 변화와 청소년"이라는 특별 강의도 실시되어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다원적 참여와 새로운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진로 선택의 지혜」 발간 보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미래 세계를 전망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자료

를 각 학습의 문고에 20부씩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대출하여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96년 10월 중 발간 배부한다.

□ 초등학교 영어 교수·학습 지도 자료 발간 보급

내년부터 실시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어를 게임이나 활동 중심으로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 교사용 지도 자료 「재미있는 영어 공부」를 발간 보급하여 외국어 입문기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어과 교수·학습 방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 「한발교육」 제 14호 발간

대전 지역의 교육 정보지인 「한발교육」 제 14호를 8월 31일자로 발간하여 관내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 및 전국 교육연구원에 배부하였다.

이번호의 특징으로는 '교육개혁 뿌리 내리기'로서 교육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정의보다는 교육개혁의 정착기에 접어든 현실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 현장 위주의 실천 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집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7명의 필자들에 의해 세밀히 검토된 연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기획단의 서명법 과장이 기고한 글, 홍성표 충남대 교수의 교실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전문직,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육개혁의 현실과 실천 방안 등

에 대한 믿도있는 탐색의 결과는 교육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참고와 조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호에는 이 그밖에 각종 교육정보나 교육논단, 학교자랑, 국외탐방 등이 알차고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마지막 페이지의 넘김을 아쉽게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

□ '96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교육부 주최 '96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가 교육연구원(원장 임원규) 주관으로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대전학생교육원에서 1박 2일동안 개최되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은 지역사회의 유능한 자원 인사를 학생상

담 활동에 참여시켜, 학교의 상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학생 및 결손 가정의 학생을 격려하고 날로 심해가는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진로선택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회의 학교화는 물론, 학교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실시해야 할 시점에 있다.

올해 일곱번째로 열리는 전국 연찬회는 학생상담활동 유공자 102명에게 교육부 장관의 감사장을 수여하여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개회식에는 교육부장 정용술 초·중등 교육실장을 비롯하여 박경원 대전광역시 교육감 및 많은 내빈과 전국의 5,

300명의 봉사자를 대표한 145명의 상담 봉사자와 각 시·도 교육연구원의 담당 전문직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수학 공부의 길잡이' 발간 보급

8. 25일에 초등학교 3, 4학년 1·2학기용 '수학 공부의 길잡이'를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각 시·도 교육연구원에 배부하였다.

수학과 교육에서는 선수학습 결손이 후속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 차마다 단위학습 도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초등학교 3, 4학년 1·2학기용 수학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학습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단원별로 문제 해결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게 해주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단위 학습목표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져 있다. 또한 자율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살려 학습 부진아 구제와 수학 영재 육성에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교육연구원

□ 「인천진로교육」 제 7호 발간

관내 초·중·고교에 진로교육 자료 인천진로교육 제 7호를 9월 30일 발행 배부하였다.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9월중 상담협력학교와 지역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였으며, 9월 24일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218명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만남의 족지” 실시를 위한 상담기법을 연수하였다.

학생상담봉사자 218명의 체육대회를 10월 15일 관외 남동공단 제 1호 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진로교육 지원 연수

10월중 관내 4개 학교와 강화교육청 초·중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연수(100명)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버지 심성수련 실시

아버지 심성수련을 지역상담실에서 10월 중 실시 예정이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 「강원교육」, 「교육연구정보」 가 을호 발간·보급

강원교육 시책과 현직 연수자료, 교육정보 제공의 성격을 가진 계간지 ‘강원교육’과 ‘교육연구정보’가 각각 9월 5일과 9월 20일에 발간되어 일선학교와 전국 교육 유관기관에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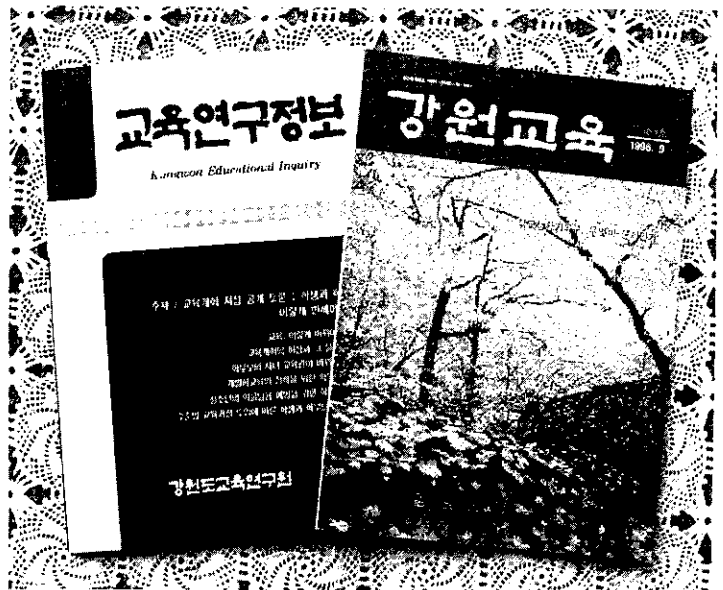
이번호의 특징은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변해야 한다.’가 지상공개 토론형식으로 다루어졌다.

기타 내용으로 현장연구 소개, 수업방법 시리즈, 교육논단 및 학교운영 사례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다.

□ 교육연구정보 센터 설립 운영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할 능력을 기르고, 학습현장의 정보화와 열린교육 환경 구형, 정보 교환을 통한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96년 3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금년 말경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정보를 수집·입력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도내 초·중등학교와 각 교육기관에 인터넷, 교육연구정보, 문헌정보,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각종 생활정보 토론방, 동호인방을 통한 교사 상호간의 정보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 진로교육 순회특강 실시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탐색과 합리적 선택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정보와 식견을 넓혀주어, 최적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96년 1학기에는 도내 고등학교 18개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계열선택과 장래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96 2학기에는 중학교 28개교에서 10,000여명의 2학년 학생들에게 21세기 미래사회와 변화될 직업세계에 대한 전망,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성격 등

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 등을 주요 내용을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행복한 사람을 위한 현명한 진로선택 능력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 '96 학부모 진로교육 연찬회 개최

인간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

비하는 올바른 자녀 지도 방법과,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상남도 덕유교육원에서 도내 전 지역에서 모인 학부모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학부모 진로교육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에서는 경남대학교 최호성교수의 '자녀 교육은 신이 던진 또 하나의 수수께끼'와 김강석 교육연구원의 '새로운 시대·새로운 진로'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올바른 자녀 이해를 돕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집단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이에 그 발표 내용에 대한 느낌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활성화

경남교육연구원에서는 '전 교원 1연구회 가입 운동'을 펼쳐 올해를 「교과교육연구회의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하고 조직과 연구과제를 정비하였다. 현재 초등 26개 연구회, 중등 35개 연구회로 회원이 총 17,000여명이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운영 지침과 연구회별 명부를 제작·배포하고 연구회 임원 연수

회도 2회 가졌다. 초·중등 11개 연구회는 지정과제를 집중 연구하여 발표회를 12월 중에 가질 예정이고, 교육과교육 개인연구발표대회도 11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 「교육정보」 91호 발간

9월 20일에 발간한 「교육정보」 91호는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남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과교육 연구'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김강석 교육연구원장의 '교과교육연구회는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힘의 원천', '교과교육 연구 방향'과 '국어교육 현장 연구·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다.

□ 「교육경남」 126호 발간

지도보급부에서 「교육경남」 가을호로 126호, 5,000부를 발간 배부하였다. 특집으로는 '청소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다루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실은 글과 교사들의 처방, 학생들의 신세대 발언을 실고 있다. 또 문학의 해 기획으로 감동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 읽어 볼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발간

'96. 9. 15.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발간 보급하였다. 이 자료집은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급 또는 소집단의 모임에 교사-학생, 학생-학생 사이에 보다 인간성이 풍부한 관계가 되도록 돕고, 개인의 독특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자료로 교재화한 것이며, 내용은 인성교육 및 집단상담과 진로지도에 대한 이론,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집의 단위 프로그램은 교사용 지도 자료와 학생용 활동 자료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학년, 학급별로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상담 시간을 설정하여 활용되되, 지도 시간의 배정, 지도 내용과 방법의 조정 등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자료집은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예시 자료로 제공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보완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본으로 마련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연구원

□ '97 대학수학능력 대비 향상 자료 발간

전라남도교육연구원(원장 황인규)에서는 '94학년도부터 일선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입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여 왔다. 특히 '95학년도 본원이 편찬한 2,300문항의 자료는 '96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에 50%의 높은 적중률을 보인 바 있다.

금년에도 새로운 경향에 따라 총 2800여 문항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문제들은 전남교육정보망(CNEI)의 대입수능문제은행(MENU)에 과목별, 단원별, 평가요소별, 출제근거별, 출제년도별, 통과율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였다. 이 자료 중에서 필요한 문항들을 검색한 다음 시험지로 편집하거나, 학교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이용할 수 있다. 11월 13일에 시행될 '97 대입수능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자	가	대	자	가	대	
료	료		행	료		행	
명	명		출	명		출	
			판			판	
			사			사	
초등학교 특별영어	배움책(상)	6,000	대한교과 서(주) (02) 3475 -3961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학년 지도서)	2,400	대한교 과 서(주) (02) 3475 -3961
	배움책(중)	6,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배움책(하)	6,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지도서(상)	2,5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중)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4,000	
	지도서(하)	2,8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 용)	2,400			
배우며 생각하 며 (초등학교용)	배움책(1-2)	4,800		성 교육 자 료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 적 학교운영(총지침서)	3,800	
	배움책(3-4)	4,000			아직도 아기라고요 (초등학생용)	2,500	
	배움책(5-6)	3,7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3,000	
	지도서(1-2)	3,3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3,400	
	지도서(3-4)	3,600					
	지도서(5-6)	3,200					
배우며 생각하 며(중학교용)	배움책	2,700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3학년용	12,000	삼 화 출 판사 (02) 776 -6687 ~8
	지도서	3,400			4학년용	12,500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1학년용	2,600		우 등 생 이 되기 위한 글읽기(초· 중등학생용)	교사용지도서	2,400	
	2학년용	2,700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3학년용	3,3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4학년용	3,7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5학년용	3,7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6학년용	3,9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생활경제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지하마을의 전설	1,400		환경 교육 자료(초등 학교용)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태호와 드송	1,500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900	
	내일은 야구왕	1,5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2,000	
	육망과 선택	1,5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2,300	
	동수의 병	1,4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900	
	화해	1,3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쟁구의 물가비행	1,400					
	한지붕 두 마음	1,300					
	물고기의 교환	1,400					
지도서(상)	500						
지도서(하)	4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영 재 교 육 자료	이야기나라 (초등학교 3,4학년용)	1,4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측정의 세계(")	1,2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용)	1,3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지도서)	2,200			자식에 관한 연구(")	1,1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용)	1,600			미술감상(")	1,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지도서)	2,600			교사용지도서(초등학교 3,4 학년용)	2,5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용)	1,600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년 용)	1,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화물의 신비(")	1,100	삼 화 출 판 사(02) 776 -6687 ~8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중학교용(A형)	750	한국적성연 구소 (02) 515 -5722 (02) 515 -5725 750 75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중학교용(B형)	750		
	깨끗한 물(")	1,100			고등학교용(A형)	750		
	동요만들기(")	1,800			고등학교용(B형)	750		
	교사용 지도서(")	3,300			대학교용(A형)	75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 생용)	1,400			대학교용(B형)	750		
	전기와 그 이용(")	1,200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인간과 생태계(")	1,000			중학교용 추가검사	750		
	바다의 신비(")	1,10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 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4,10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2학년용)	3,50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 (KEDI -WISC)	만 5세-만 15세	10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 (02) 812
	(3학년용)	3,500						-0348
영어능력신장자 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800		기초학습 기능검사	만 5세 초등학교-6학년 용	184,000		
	영어 쓰기(1)	3,100						
	영어 쓰기(2)	2,500		교실에서 세계로, 세계를 교실로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6,500	(주) 홍익 미디어 (02) 761~0650	
	영어 쓰기(3)	2,6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초등학교용(A형)	750						
	초등학교용(B형)	750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87 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6 회), '한국교육'(연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15~20 종(익년도 3 월)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 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 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1 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사무국 총무부 출판계(전화 : 3460-0408, 0411 FAX : 577-5117)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지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달의 명상



간이역의 열매들

일년의 마지막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그 긴 간이역을 지나쳐왔을까?
새벽의 긴 강을 지나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어느덧 석양에 젖어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의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본다.
가끔씩 다른 세계로 달려가는
흔들리는 자신을 지키며,
그래도 건강한 나무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한번쯤 자위해보기도 한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계절이 시작되고
벌써 은빛의 반짝거림으로 가득채워질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본다.

손영주
(홍보편집팀 기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